

e커머스 대격변... 지마켓-알리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美금리 0.25%p ↓ “고용시장 부진” 연내 더 내릴 듯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기준금리를 4.00~4.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작년 12월 금리를 낮춘 뒤 9개월 만이다.

파월 연준 의장(사진)은 1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금리를 동결해온 이유는 노동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유지했기 때문인데, 5월 이후 수정된 고용지표를 보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다”며 “그 동안의 위험요인이 물가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고용과 물가 두 위험요인이 균형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노동청에 따르면 8월의 비농업 취업자수는 2만2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월 전인 6월(14만7000명)과 비교하면 12만5000명 감소한 수준이다. 취업자수는 6월 이후 ▲7월 7만3000명에서 ▲8월 2만2000명으로 줄었다.

실업률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실업률은 ▲6월 4.1% ▲7월 4.2% ▲8월 4.3%로 상승했다.

한번 이날 점도표에서 연준위원 19명 가운데 9명은 올해 기준금리가 3.5~3.75%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현 금리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위원은 6명이었으며, 4.00~4.25%에서 2.75~3.00%로 내려야 한다는 위원은 1명이었다.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 앞으로 연준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일부 수용하더라도 고용을 지키는 쪽으로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보다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 분석이다.

모건스탠리(MS)는 “공급충격 시기에 고용유지를 위해 인플레이션을 용인해 왔던 파월 의장체제의 연준의 반응습수를 읽을 수 있었다”며 “이는 반드시 중립금리에 도달해야 하는 것도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는 10월 이후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이피모건스(JPM)는 “보먼과 월러(Bowman·Waller) 이사가 0.25%p 인하해 찬성했지만, 점도표 및 정책결정문 가이드는 10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기에는 매우 강한 경제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신세계그룹 계열사 지마켓과 알리바바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이 규제당국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국내 해외직구 시장 1위와 4위 사업자가 손잡으면서 온라인 쇼핑시장 경쟁 구도가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또 정부의 온플법 추진과 맞물리며 e커머스 시장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합작사 ‘그랜드오피스홀딩’을 세워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국내 소비자 데이터 차단을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합은 지마켓이 아폴로코리아가 보유한 지분 100%를 현물출자하고, 알리익스프레스가 합작사 지분 50%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지난 1월 신고가 접수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실질적 경쟁 관계에 있었던 점과 향후 경쟁 제한 가능성을 중점 검토했다.

현재 해외직구 시장 점유율은 알리익스프레스가 37.1%로 1위, 지마켓이 3.9%로 4위다. 결합 후 점유율은 41%에 달하며, 특히 중국발 상품 비중 확대와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확장세를 고려하면 실제 시장 지배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공정위는 내다봤다.

심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데이터 결합’이었다. 지마켓의 약 5000만명 국내 회원 데이터와 알리익스프레스의 글로벌 소비자 데이터, AI 분석 역량이 결합될 경우 경쟁사들은 막대한 투자 부담과 이용자 이탈에 직면해 신규 진입 장



한강버스 첫 운항 한강버스 개통일인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한강버스 정류장에서 한강버스가 운항하고 있다. /뉴시스

결합 후 해외직구 점유율 41% 데이터 결합 경쟁제한성 우려 공정위, 3년간 분리 조건 부여 온플법 맞물려 시장 판도 주목

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 고착 효과가 강화되고, 개인정보 보호·보안 관리 유인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공정위는 ▲양사 독립 운영 ▲국내 소비자 데이터 기술적 분리 ▲상대방 데이터 활용 금지 ▲우회 제공 차단 등을 명령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3년간 유효하며, 이후 시장 상황을 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IT 전문가

가 참여하는 이행감독위원회를 꾸려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 승인 차원을 넘어 ‘데이터 결합 자체가 경쟁제한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사례다. 향후 빅테크 인수합병 심사뿐 아니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심사에서도 데이터 요소가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기업결합심사 기준을 개정해 플랫폼 결합에서 데이터 요인을 별도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직구 시장은 ‘데이터 축적 →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신규 이용자 유입’으로 이어지는 강한 피드백 구조가 작동한다”며 “두 데이터가 합쳐지면 네트워크 효과가 배가돼 시장 지배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 과정에서 데이터가 가진 중요성에 대해 업계도 핵심적인 경쟁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결합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경쟁제한적 행위들을 평가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공정위 승인 직후 환영 입장을 내고 알리바바와의 조인트벤처를 공식 출범시켰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 생기도록 할 것”

李대통령, 리서치 센터장들 만나 ‘코스피 5000 돌파’ 의지 재확인 남북 대립·긴장 완화도 도움 될 듯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을 만나 “누가 ‘국장(국내 증권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말하던데,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며 증시 활성화 의지를 다시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라는 주제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제가 대선 후보 때 정권 교체만 해도 주가지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3000은 넘길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돼서 다행”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내 경제·금융 현안

청취 및 정책 개선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투자업계·자본시장 활성화 를 포함한 임기 내 ‘코스피 5000 돌파’

의지를 재확인했다.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실제 국정과 경제 지휘봉을 쥐고 일을 하다 보니 점점 더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경제는 합리성이 생명이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몇 가지 핵심 과제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단 중요한 과제로 꼽았던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이나 불공정 공시 같은 것들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그것은 꽤 진척이 돼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3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마이클 샌델 만나 “평화는 손실 아닌 이익”
▲한미연합사, 연합·합동 의무지원훈련 실시... 한미 24개 부대 참가 /사진 뉴시스

▲최교진 “입시 절대평가 전환, 대체로 공감... 다음 대입 개편까지 준비”
▲한·중 외교회담 당일 북·중 당국자도 북한서 회동

▲이태열 거제시의원 “양대 조선소 지역인재 채용 급하다”
▲이 대통령, 스타트업 만나 “신기술·구산업 충돌, 정치가 역할 해야”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2025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현대차

현대차, 전동화 기술로 '위기 돌파' 2030년 글로벌 판매 555만대 목표

美서 CEO 인베스터 데이

올해 中서 SUV '일렉시오' 출시
내년 유럽, 내후년 인도서 '신차'
2030년 연결영업익 8~9% 설정

현대자동차가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전동화 파워트레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관세 부담 등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복합위기를 정면 돌파한다.

현대차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더 셰드'에서 글로벌 투자자, 애널리스트, 신용평가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5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중장기 전략과 재무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는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목표로 2019년 도입한 CEO 인베스터 데이를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서 개최하며, 그 장소로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의 핵심 도시이자 글로벌 경제, 금융, 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으로 정했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된 이번 행사에서 현대차 호세 무뇨스 대표이사(CEO) 사장과 이승조 재정본부장(CFO) 부사장, 김창환 전동화에너지솔루션담당 부사장, 유지한 차량악티팩처&인테그레이션센터장 겸 자율주행개발센터장 전무 등이 발표자로

나서 현대차의 미래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현대차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전략형 모델을 대거 선보인다. 현대차는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전기차, EREV,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파워트레인 기반의 신차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30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 555만대 달성을 추진한다.

현대차는 올해 중국 시장에 준중형 전동화 SUV '일렉시오'를 출시하고 2026년에는 준중형 전동화 세단을 출시할 방침이다. 두 차종 모두 중국에서 생산되는 현지 전략형 EV다. 이어 내년에는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 회복과 대중화를 이끌어 나갈 '아이오닉3'를 출시한다. 인도 시장의 경우 2027년 현지 전략형 준중형 SUV 전기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아 '극기의 친환경차'로 불리는 수소전기차 경쟁력도 확대해 나간다. 현대차는 올해 2세대 넥쏘를 출시한 데 이어 향후 내연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주행성능과 내구성을 갖춘 차세대 수소전기차를 지속 개발하는 한편, 승용, 상용을 아울러 FCEV 시장 확대에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본격 생산을 시작한 미국 현대

차그룹 메타플랜트(HMGMA)에 더해 향후 가동될 인도 푸네공장, 울산 신공장 등 혁신 생산기지들은 현대차의 글로벌 판매 성장을 뒷받침할 근간이다. 현대차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77조 300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혼돈기 속에서도 글로벌 톱 티어 기업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호세 무뇨스 사장은 "현대차는 글로벌 판매량 확대 및 생산 거점 확보,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현지화된 운영체계, 그룹사 시너지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동차그룹 톱 3라는 위치에 올랐다"라며 "불확실성의 시기를 다시 마주했으나, 이전의 경험처럼 또 한 번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미래 모빌리티 회사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연결 부문 영업이익률 목표를 ▲2025년 6~7% ▲2027년 7~8% ▲2030년 8~9%로 설정했다. 또 지난해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2025~2027년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포함해 매년 최소 35%의 총주주환원률(TSR) 기준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고, 주당 최소배당금(DPS) 1만원 등의 주주환원정책을 이행할 예정이다.

/양성연 기자 ysw@metroseoul.co.kr

카카오, 500억 투입... 지역 AI생태계 육성

국내 4대 과학기술원과 협력 5년간 AI스타트업 등 지원나서

카카오그룹이 국내 4대 과학기술원과 협력해 500억원을 투자, 지역 AI 생태계 조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나선다. 카카오그룹은 18일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4대 과기원과 함께 향후 5년간 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지역 AI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AI 스타트업 투자 지원 ▲AI 미래 인재 양성 ▲지역 특화 산업 AI 전환 연구 지원 ▲AI 리터러시(이해력) 증진 등 4대 핵심 과제로 구성된다. 각 과제의 세부 내용은 과기원

들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의 주요 목표는 인재 성장 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다. 미래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기부터 스타트업 창업 단계까지 이어지는 교육 과정을 마련,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인재를 분산하고 지역 기반의 성장을 촉진한다. 카카오는 이를 통해 교육-연구-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지역 산업 전반의 AI 전환(AX)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4대 과기원과 함께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해 연구 성과의 사업화와 글로벌 진출을 촉진한다. 카카오그룹의 투자 전문 자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과기원 내 우수 인재들이 창업한 AI 스타트업에 초기

자금을 투자하고,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뱅크·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페이 등 그룹 주요 계열사 전문가들이 멘토링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창업 지원과 산업 현장 연결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카카오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거점 모델을 구축하고,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단순한 연구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산업화와 글로벌 진출까지 연계하는 실질적인 AI 육성 허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AI 인재와 스타트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기반에서 세계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최빛나 기자 vitna@

8만전자 도달... 삼성 '11만 전자' 가나

HBM·D램 등 반도체 업황개선 조짐
27개 공모펀드에 3개월간 484억 유입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호황에 따른 K-반도체 업황 기대감에 삼성전자 주가가 뿔뿔 날자 삼성그룹주를 담은 펀드도 호재를 맞았다. 지지부진했던 수익률도 최근 반전됐을 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자금도 빠르게 유입되며 덩치를 키우고 있다.

18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그룹 관련 27개 공모펀드에 최근 석 달 동안 484억원, 여섯 달 동안 1566억원이 유입됐다.

그룹주 펀드의 비중이 가장 큰 삼성전자 주가가 '8만전자' (주가 8만원)에 올라설 정도로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다.

삼성전자의 상승 배경은 첨단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외에도 D램과 낸드 메모리 등 범용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면서다. 인공지능(AI)이 보편화되고 챗GPT 등 AI가 응답을 생성하는 '추론'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범용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들면서 국내 반도체업체엔 유리한 상황이 됐다.

외국인도 사고 있다. 외국인인 이달

들어 3조원 넘게 삼성전자를 장바구니에 담았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가 '11만전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IBK투자증권은 이날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주가를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올렸다. 투자이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김운호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2025년 3분기 실적에 전망치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라면서 "매출액은 87조8000억원, 영업이익은 10조4000억원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디바이스솔루션(DS) 실적 개선이 주요 원인"이라면서 "D램은 제품 믹스 개선으로 차별화된 평균판매가격(ASP) 상승이 기대되며, 낸드 가격 상승과 비메모리 사업부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메모리 업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이전 전망 대비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 중인 가운데 갤럭시Z 폴드 역시 이전 전망보다 판매량이 많다"면서 "연말까지 이익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B증권도 업황 개선·IT수요 회복 등 베스트 시나리오에선 삼성전자 주가가 최고 11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8만8800원에서 9만6000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가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해킹 사고로 인한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 숙여 사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고객에 손실 전가 안해... 피해액 전액 보상”

롯데카드, 297만명 고객정보 유출
조좌진 대표 “심려 끼쳐 죄송하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까지 노출돼 피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카드 측은 피해 고객에게 유출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고, 무이자 10개월 할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해킹 사고 관련 언론 브리핑을 열고 “고객 여러분, 유관 기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발표된 유출 피해 고객은 총 297만명이다. 유출된 정보는 지난 7월 22일과 8월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 및 수집된 데이터로 ▲연계정보(CI) ▲가상결제코드 ▲내부식별번호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이다.

이 중 28만명의 고객은 카드 재발급이 필요한 유출 피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

다. 유출 정보에는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번호에 더해 주민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다.

조 대표는 “전체 유출 고객 중 유출된 고객정보로 카드 부정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총 28만명”이라며 “이들에게는 카드 재발급 안내 문자를 추가로 발송하고, 안내전화를 병행해 카드 재발급 조치가 최우선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고객보호 조치도 약속했다. 조 대표는 “어떠한 손실도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며 “롯데카드가 책임지고 피해액 전액을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객정보가 유출된 고객 전원에게는 연말까지 금액과 관계없이 무이자 10개월 할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 28만 고객의 경우 카드 재발급 시 차년도 연회비를 한도 없이 면제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연말까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인 크레딧케어 무상제공과 카드 사용 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e커머스 규제 도마 위… “공정질서 확립” vs “경쟁력 약화”

〈정부〉

〈이커머스 업계〉

온플법 국정과제 공식화

온플법, 거래 조건 공개 등 담겨
업계 반발… “혁신서비스 발목”
글로벌 스탠다드 부적합 우려도

정부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공식화하며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 규제 논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관련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업계는 과도한 규제로 이커머스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안을 확정하고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근절 및 규율체계 마련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방안을 포함했다.

◆피해는 중소 판매자와 소비자에

18일 업계는 온플법이 시행되면 지나



지난 16일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치게 획일적인 규제로 인한 피해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했다.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규

제다. 온플법 시행으로 거래 조건 고지, 정산 주기, 수수료 규제 공개 등이 의무화될 경우 플랫폼 운영 유연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커머스 업체 A 관계자는 “지나치게 일률적인 규제가 적용되면 혁신적인 서비스를 시도하거나 중소 판매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규제 방식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유통학회는 지난 5일 ‘유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온플법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 참석한 이동일 세종대학교 교수는 “국내 온라인 유통은 이미 물류 내재화, 포털 중개, PB 중심 등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다”며 “모든 플랫폼을 동일하게 보고 규제하면 차별성이 가지는 경쟁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팡의 직매입 모델이나 네이버의 중개 모델에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오히려 혁신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임영균 광운대학교 명예교수는 “새로운 유통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플랫폼 가치사슬의 본질과 실증을 토대로,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정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 범위와 정도가 확정되지 않아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이달 18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만 18개에 달한다.

이커머스 B사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나 규제 정도가 어느 정도 확정돼야 할 텐데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美 반대 입장 표해… 공정거래법 활용 절충 조언도

미국이 온플법에 반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법 제정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구글, 애플 등 미국 플랫폼이 온플법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

국은 지속적으로 온플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지난 16일 임기를 시작한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식에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선 “통상 협상이 중요한 이슈이기에 독점규제 플랫폼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지적했다.

온플법이라는 확실적이고 강력한 수단 대신 공정거래법을 활용한 절충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갑질을 줄이고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한 시장을 만드려는 취지는 옳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을 규율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합의 기구를 만들어 플랫폼 관계자들을 설득하거나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1면 ‘국장 복귀는 지능순…’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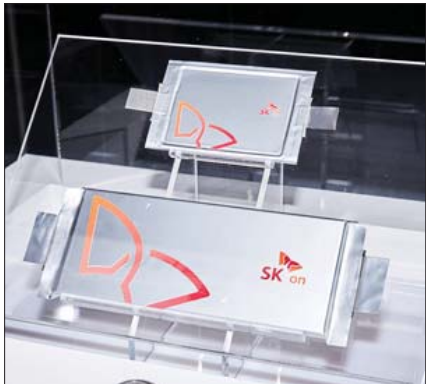
전고체 배터리, 안정성·경제성 불투명… 상용화 지연 전망

덴드라이트 등 기술적 난제 산적 “시기보다 수율·원가 경쟁력 우선”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가 오는 20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목표를 내걸었지만, 실제 성과까지는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안정성과 경제성 확보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시기보다 수율·원가 경쟁력 확보가 우선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가 사활을 걸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의 주요 배터리 구성물 중 전해질을 액체가 아닌 고체로 채운 차세대 전지다.

기존 액체 전해질은 이온 이동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연성 탓에 화재 위험이 존재했다. 전고체는 불연성 고체 전해질을 써 안정성이 높고, 에너지 밀도와 출력도 기존보다 뛰어나다. 현존



인터배터리 2025' 현장에 전시된 SK온의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SK온

전기차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꼽히는 화재 위험을 줄이고 주행거리를 늘려 성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평가다.

삼성SDI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시제품을 공급하며 성능 검증을 진행 중이고, LG에너지솔루션은 충북 오창에 파일럿 라인을 구축해 황화물계 전해질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온도 2028~2029년 상용화를

타진하며 뒤를 쫓고 있다.

시장 규모도 급성장하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는 전고체 배터리의 글로벌 시장 규모를 지난 2022년 2750만달러(약 400억원)에서 오는 2030년 400억달러(약 58조원)로 급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상용화까지 현실의 벽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배터리업계가 꼽는 최대 난제는 덴드라이트(dendrite)다. 리튬 금속 음극을 쓸 경우 충·방전이 반복되면서 나뭇가지 모양의 돌기가 형성돼 수명과 안전성을 동시에 위협한다. 실제로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 연구팀은 황화물계 전해질을 적용한 전고체 셀에서 덴드라이트가 전해질을 관통해 단락을 일으킨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전고체 역시 구조적 보완 없이 덴드라이트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준다.

계면 안정성도 큰 걸림돌이다. 고체 전해질과 전극은 액체처럼 빈틈을 자연스럽게 메우지 못해 충·방전 과정에서 접촉 불량 발생한다. 일본 도요타가 공개한 초기 전고체 시제품 역시 수십 회 충·방전만에 급격한 성능 저하를 겪은 바 있다.

양산 과정의 불확실성도 크다. 고체 전해질은 균일한 제조가 쉽지 않고 전극과 맞닿는 계면 가공과 수율 확보가 모두 비용과 직결된다. 삼성SDI가 공개한 파일럿 라인에서도 ‘압착 공정의 정밀도’가 가장 큰 과제로 꼽혔다. 세라믹 전해질은 제조 단가가 높고, 황화물 전해질은 수분과 반응해 황화수소(H₂S) 가스를 발생시켜 생산라인 안전 부담이 커진다.

업계 전문가들은 “전고체는 미래지향적 기술이지만 과장된 기대보다는 난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삼성·LG·SK가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수율·원가 경쟁력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러, LNG 공급망 리스크 고조… 美 알래스카 사업 이목집중

사할린 LNG 프로젝트 불확실성 확대
포스코인터, 글렌파른 예비 합의서 체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와 관련한 예비 계약을 체결해 주목받고 있다. 러시아 사할린 LNG 프로젝트에서 배당 송금 제한과 장기계약 재협상 리스크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계약은 국내 LNG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국 에너지 인프라 기업 글렌파른과 연간 100만 톤 규모의 LNG를 20년간 공급받는 예비 합의서를 체결했다. 계약에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필요한 철강 공급 조건도 포함됐다. 이 물량은 지난해 한국 전체 연간 LNG 수입량(약 4701만 톤)의 약 2%로, 사할린 LNG 도입량(연간 최대 150만 톤, 전체 수입 대비 약 3%)과 비슷하다.

현재 러시아 사할린 섬에서는 사할린-2 LNG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은 2008~2028년까지 연간 최대 150만 톤을 도입하는 장기계약을 맺어왔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의 국유화 조치 이후 배당 송금 제한과 계약 재협상 리스크가 불거졌다. 일본 기업들도 배당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구매 계약자인 한국 역시 계약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대체 조달원 확보가 불가피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포스코인터의 알래스카 LNG 예비 계약과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8월 미국 에너지 기업 트라피구라와 스위스 기업 세니에르와 체결한 연 330만 톤 규모 미국 텍사스주 코퍼스크리스트 LNG 도입 계약은 국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새로운 공급선을 확보함으로써 가격·공급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북부 노스슬로프 지역의 천연가스를 남부 니키스키 항까지 약 1300km 파이프라인으로 운송해 액화·수출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연간 생산량이 1500만~1800만 톤으로 한국 연간 수입량의 절반에 달한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운송비 절

감이 가능하고, 장기 구매 계약을 통해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라는 점에서 미국 에너지부(DOE)의 별도 수출 허가 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분 참여와 트레이딩 등 다양한 사업 모델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향후 계약 구조와 수익 모델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미국 셰일 LNG 경험을 바탕으로 소수 지분 참여와 장기 계약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예비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향서 형태다. 포스코인터는 이들 조건의 타당성과 수익성이 검증되면 최종적으로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李 대통령, ETF 공개 4개월만에 26% 수익

또 이 대통령은 ‘의사 결정의 합리성’과 관련해서 “상법 개정으로 그 의지가 실현되고 있는데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그런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은 다 끝날 것 같기는 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한반도 정세·안보 문제에 대해 “남북 간 군사적 대립·긴장을 완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그 부분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에 돈은 많이 생겼는데 그 돈이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는데 이는 국가 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후 진행된 오찬에서 센터장들은 규제 완화와 배당 확대, 벤처 육성 등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각방안이 가져올 효과와 선진국 사례 등을 짚으며 가능한 제안들은 따로 검토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안을 전달하면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난 5월 대선후보 시절, ‘코스피 5000’ 공약 실현 의지를 보이기 위해 투자한 ETF 투자 성적표를 공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당선이 되면 임기 동안 총 1억원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당시 공개 라이브 방송에서 코스피200, 코스닥 150 ETF에 각각 2000만원을 거치식으로 투자했으며,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코스피 200에 400만원의 적립식 투자를 통해 총 4400만원을 투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으로 이 대통령의 ETF 평가이익은 1160만 원으로, 26.4% 수익이 발생했다.

/서예진 기자 syj@

‘하나로 연결된 금융’… 非은행·ESG·디지털로 미래 연다

금융의 미래

하나금융그룹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스마트폰을 앞세운 모바일혁명의 ‘대전환’이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인공지능(AI) 회사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와 이세돌 바둑9단의 바둑대결을 계기로 AI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이후 전 세계는 AI의 발달에 힘입어 디지털전환(DX)의 바람이 기업을 중심으로 거세게 불기 시작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바이오산업의 중요성과 함께 사회 전반에는 비대면 문화가 확산됐습니다. ‘대전환시대’의 도래입니다. <메트로경제>는 이 같은 대전환기를 맞아 ‘생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대한민국 전환기의 핵심동력인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집중 조명합니다. <편집자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비전은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이다. 단순히 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모든 가치를 하나로 연결하겠다는 것. 20년간 이어진 ‘하나의 문화’와 혁신 플랫폼을 통해 금융을 전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탄소제로와 고품격 저출산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현재 하나금융은 그룹 전체 순이익에서 은행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비은행 부문 순이익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하나증권 산하의 하나자산운용을 그룹 자회사로 승격시키는 등 비은행 계열사들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확장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 그룹의 비이자이익 중 수수료 이익을 보면 지난해 1분기 1조33억 원에서 올해 1조80억 원으로 4.6% 상승했다. 그룹 매매 평가이익도 같은 기간 645조원에서 827억 원으로 28.1% 늘었다.

박종무 부사장 및 그룹 재무담당최고 책임자(CFO)는 컨퍼런스콜을 통해 “신용카드 해외 매출액이 증가하고, 운용리스자산이 늘어나는 등 수수료 기반이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원화 강세

흐름에 따라 외화 환산이익과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매매의 시현으로 그룹 평가 이익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은행 의존 낮추고 非은행 성장 강화
2027년까지 비은행 이익 30% 목표
자산운용 승격으로 경쟁력 강화
시니어 특화 ‘하나더넥스트’ 확대
어린이집 100호 건립, 저출산 대응

◆ 시니어층, 건강부터 금융까지 관리

하나금융은 금융과 비금융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생명 등 그룹 계열사와 협력해 새로운 금융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람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층인 만큼 유연신탁 등 기존 시니어 금융서비스에서 나아가 요양사업과 헬스케어에도 범위를 확대 중이다.

하나금융은 ‘하나더넥스트’ 브랜드를 통해 고령화 사회 고객을 위한 시니어 특화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생명 등 그룹 계열사가 협력해 은퇴설계, 상속 증여, 건강관리 등 금

융과 비금융 분야를 아우르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하나더넥스트의 시그니처 상품은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다. 가입자나이가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주택 중 KB 인터넷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을 가진이라면, 이를 담보로 가입자 및 배우자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최근 고령층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엔젤로보틱스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엔젤로보틱스는 보행 재활 로봇과 근력보조 로봇 등 다양한 의료 헬스케어용 제품을 개발했다. 고령층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금융 기술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0호 어린이집도 건립했다. 남녀 모두 육아에 함께 하기 위해선 늦어도 아이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 2018년부터 보육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건립한 하나금융은 지난해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함 회장은 “민고 안심하며 맡길 수 있는 좋은 보육환경은 단순한 보육공간의

의미를 넘어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가치로운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30년까지 60조원 ESG 금융 지원

하나금융은 기후변화 문제를 실제 위기로 인식하고, 기후변화 완화와 대응을 위한 전사적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

7개 관계사(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캐피탈, 하나생명보험, 하나손해보험, 하나저축은행)의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무정액 ▲자연전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재무영향을 파악했다. 무정액 일때 의미가 없었지만 자연전환, 탄소중립을 실천할 때에는 고탄소산업에 대한 충당금 증가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30년까지 ESG 금융 60조 공급
고탄소 줄이고 친환경 투자 확대
하나원큐 가입자 1710만명 돌파
비대면 대출 급증, 접근성 강화
시니어 전용공간 등 영업망 혁신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2030년까지 ESG채권 25조, ESG여신 25조원, ESG투자 10조원 등 총 60조원의 ESG 금융을 달성한다. 포트폴리오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탄소 배출업종의 투자를 배제하고, 친환경·저탄소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하나금융은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금융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혁신적인 플랫폼 개발과 특별 영업점 확대에도 적극적이다.

하나금융의 하나원큐앱에 가입한 사람은 2021년 1280만명에서 올해 상반기 1710만명으로 33.59% 증가했다. 비대면 상품을 이용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누적 3조9740억원으로 건수는 2만 1082건이다. 지난해 2분기말과 비교하면 78.4% 증가했다. 플랫폼을 통해 금융의 접근성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영업점도 시니어 전용공간으로 마련하고 있다. ▲하나 시니어 라운지 ▲하나 50+ 컬처뱅크와 같은 시니어 전용 공간을 운영하고 ▲어르신 위한 움직이는 하나은행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며 ▲하나 시니어 라이프와 같은 특화 서비스로 연금, 상속, 증여 등 맞춤형 금융컨설팅을 제공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왼쪽 네번째)이 서울 명동 사육 앞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서 그룹 경영진과 함께 김장을 담고 있다.



지역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오른쪽)이 천장호 광운대학교 총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Hana Financial Group Championship

리디아고
Lydia KO

LPGA 통산 23승

이민지
Minjee LEE

LPGA 통산 11승

마다솜
Dasom MA

Defending Champion

이예원
Yewon LEE

노승희
Seunghui RO

황유민
Youmin HWANG

박연경
Hyunkyung PARK



공항철도를 타고
청라국제도시역(하나금융타운)으로
오시면 갤러리 티켓 교환권을 드립니다.

2025. 9. 18(목) ~ 9. 21(일)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

주관 |



방송 |



기획/운영 |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우재준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처벌을 강화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를 주제로 중처법 중간점검 및 인명사고 방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산재 억제효과 미미 예방보다 처벌 방점”

野, 중처법 중간점검 토론회

중처법 위반사건 처리도 지진부진
구체적·명확한 법령·기준 등 절실

산재기업 영업익 5% 과징금 비판
피해자 유족 보상 강화 의견 제시

국민의힘이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재해자수와 재해율이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여전히 기업 처벌 위주의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근본적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우재준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처벌을 강화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란 주제로 개최한 중처법 중간점검 및 인명사고 방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 모색 토론회에선 중처법 시행에도 산업재해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보고서가 주로 논의됐다.

중처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최대 10억원을 부과하는 법으로 문재인 정부인 2022년에 시행됐다.

이재명 정부는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동영 입법조사관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중처법 시행 전후로 재해자수와 재해율이 증가했고 사망자수와 사망률은 변화하지 않았다. 이 조사관은 “중처법이 도입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처법의 산재 억제 효과가 아직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중처법 시행 후에도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재해자수가 증가했고, 사망자수에 변화가 없었다. 중처법 시행 초기부터 적용 대상이었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해율은 오히려 증가했고 사망률은 변화가 없었다. 2024년 1월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이었던 ‘5인 이상~49인 이하 사업장’에서 재해자수가 증가했고 사망자수는 변화 없었다.

이동영 조사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

반 사건 처리 현황을 공유하며 지방노동청에 산재 발생 보고가 2986건이지만, 기소와 재판을 거쳐 최종 확정 공표된 사건은 15건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사건 1252건 중 73%인 917건이 수사 중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처리 시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높은 무죄율과 집행유예율로 국민 불신을 확대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이 조사관은 산업재해 감축 방안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령 및 기준 정비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 질적·양적 확대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 방안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우재준 의원은 “중처법이 왜 예방효과가 떨어지냐에 대한 교훈을 깊이 고민하지 않고 (정부가) 처벌이 약해서 ‘안 되는 것 아니냐, 더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 ‘형사처벌이 안 되니 오퍼를 구속해야 하고 과징금을 때려야 한다’ 등 더 센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접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책임에 대한 것은 한번도 말하지 않는다. 기업들에 산재가 일어나니까 영업정지, 구속 등 온갖 협박을 한다”며 “코레일 같은 경우 정부 지분이 100%인 기업인데, 거기서 일어난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산재 피해자 유족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며 “이 대통령이 산재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 5% 정도의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하는데, 저값이면 그만큼 피해 유족 보상을 올리겠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중처법 소관 상임위가 환노위가 아닌 법사위 인걸 지적하면서 “중처법은 탄생 때부터 상당히 악의적으로 탄생했다. 산업안전 사고 예방에 방점을 두어 할 법이 애시당초부터 형사처벌 위주의 법사위 소관 법률이 됐나”라고 반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동안전종합대책은 아무리 봐도 예방보다 처벌에 방점에 찍혀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업이익 5%, 최소 30억원 이상 과징금은 기업들 죽으라는 것이다. 기업은 사고 예방 못한 책임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라며 “이렇게 이중삼중 기업을 옥죄서 나중에 일자리가 없으면 고용노동부가 책임진다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청년 주거·일자리 등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李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청년문제 해결 없이 韓 미래도 없어
미시정책·근본적 해결책 동시 추진”
청년담당관에 임명장 수여도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장기간 누적된 경제·사회적 문제들이 악화되면서 빚어진 구조적 위기 문제”라면서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양대 핵심 청년과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 처방뿐 아니라 장기적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난제(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기 처방을 통해 정책의 효능감을 높이고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월세 지원 확대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같은 미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청년의 문제 의식과 관점이 청년 정책에 온전하게 반영돼야 된다는 점이다. 이에 필요한 절차나 제도를 잘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주형(왼쪽), 최지원 청년담당관에게 임명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날 이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이주형·최지원 청년담당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두 청년담당관은 블라인드 공개 채용을 거쳐 지난달 19일 임용된 바 있다. 이주형 담당관은 1993년생으로 서울시 청년 부서와 서울청년센터에서 청년 관련 업무를 했고 1994년생인 최지원 담당관은 복지관·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청년비서관’을 블라인드 공개 채용으로 뽑은 점을 언급하며 “꽤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시 청년비서관은) 모경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데, 꼭 정치하란 이야기는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실력 발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치열하게 오늘을 살면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참신한 정책들, 우리 청년의 입장에서 많이 발굴해 주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9일 있을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에 대해 “각자 서 있는 정치적 위치는 다 달라도 여야는 어려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힘을 모아야 될 책임이 있다”며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공통 공약을 시작으로 여와야, 또 여와 여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더 많이 지혜를 모으고 더 크게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몰려오는 삼각 파도에 맞서 국가 역량을 더욱더 하나로 모아야 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

“내란종식으로 국가 정상화” vs “與, 위헌정당해산심판 대상”

〈민주당〉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박태홍 “尹 재임 시 코스피 5.05% ↓
李 정부 3개월 반 만에 24% 상승”

나경원 “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
與,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흔들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18일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권을 침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정부가 위헌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국가부도 위험이 더 높았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두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도 나온다. 권력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핵심적 가치다. 이 건 누구도 흔들 수 없다”며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대법관을 증원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고,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모든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위헌 정당해산심판을 하게 돼 있다”며 “(민주당이) 바로 위헌정당해산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할 생각 없나”라고 물었다.

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핵심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위

〈국민의힘〉

있다고 주장했다”며 “저는 뉴스를 접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났나 놀랐을 까봐 걱정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부도 위험은 한국의 CDS 프리미엄 지수로 확인할 수 있다. 12·3 비상계엄, 미국의 관세정책 발표 때 치솟았다가 최저치로 하향 안정화 돼 있다. 윤석열 정부 때보다 국가 부도 위험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며 “이렇게 정치가 경제 도움을 못 줄 말정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냐”라고 반문했다. CD S프리미엄 지수는 채권 부도 위험을 지수화한 지표로, 국가나 기업의 신용위험이 커질수록 지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2년11개월 동안 코스피는 5.05% 하락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개월 보름 만에 코스피가 24% 상승했다”며 “이것이 실력의 차이 아니겠나. 증시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이재명 정부의 개혁으로 인한 투자자 신뢰 회복과 기대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해의 투자자는 코스피 지수 5000이 아니라 1만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했다”며 “자사주 소각 등 후속 개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는 전제”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한국에 대한 투자 결정은 지배 구조와 세제 개편 뿐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탈,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K-팝 등 문화 콘텐츠, 노동안정 등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정책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경제, 사회, 금융, 문화가 함께 움직일 때 대한민국의 진짜 경쟁력이 만들어진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헌정당해산심판 청구 대상”이라며 “김 총리는 이 모든 것을 한번 검토하고 법무 장관에게 지시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금 이 독재의 시간이라면 100일 전 윤석열 정권의 시간은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라고 답했다.

대정부질문 두번째 주자로 나선 박태홍 민주당 의원은 “내란 잔당들이 여전히 국민을 불모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내란을 종식해 국가를 정상화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으로 국력을 회복해야 할 대한민국은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광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국가 부도위험을 문제를 불러올 수

한국인의
패스트 푸드를
세계인의
베스트 푸드로

| 리아 새우 |

| 리아 불고기 |



TASTE THE FUN

LOTTERIA™

‘해외 송금 빠르고 싸게’ 은행, 스테이블코인 속도

신한은행 등 3곳 ‘팩스’ 1단계 검증
외국인 송금수수료·시간 절감 기대

국내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도입 준비에 분주하다. 해외 송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복잡한 송금 절차와 높은 수수료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빠를수록 신규 고객 유치와 글로벌 시장 확장에도 유리할 수 있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케이뱅크는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기술검증(PoC) 사업인 ‘팩스프로젝트(Project Pax)’의 1단계 검증을 마쳤다.

프로젝트 팩스는 스테이블코인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송금할 경우 국가간 법적·기술적 개선 과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프로젝트다.

팩스 프로젝트의 1단계 검증과정은 한국에서 원화를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송금한 뒤, 일본에서 이를 엔화로 환전해 받는 방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은행망의 규제를 준수하면서 국경 간 자금 이동 구간에만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송금이 기존 시스템에 큰 부담 없이 적용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2단계는 결제로 범위를 확대해 안정장치를 도입하고, 실 거래 범위를 확대한다. 해외송금이나 무역 결제 시 한쪽만 지급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위험도 원천 차단하는 방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2단계 검증시점과 상용화 시점은 아직 미정인 상태다.

이처럼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도입



서울 한 카페점에서 직원이 암호화폐인 ‘페코인(PCI)’을 이용한 결제를 시연하고 있다.

/뉴시스

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해외송금과 관련한 고객의 니즈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자국으로 돈을 송금할 경우 소요시간은 최대 5영업일, 1~2%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할 경우 시간은 1영업일로 줄어 들고,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다.

기업들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경우 복잡한 절차와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국내 은행이 원화를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송금하면 기업은 이를 외국 원화로 환전해 받을 수 있다. 실시간 송금이 가능하고, 은행망을 거치지 않아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기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방형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구조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며,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과 기업까지 참여해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 경우 이를 위한 신규 고객유치와 시장 확장도 가능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저축은행이 줄인 여신, 인뱅이 늘린다

저축銀 개인사업자 대출 4조 감소
카뱅, 담보 대출 중심 1년새 2배 ↑

저축은행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사업자대출을 줄이는 사이, 인터넷은행이 개인사업자 여신을 확대하며 외형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3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14조9458억원으로 전년 동기(18조4806) 대비 4조원 가량 줄었다.

특히, 지난 2023년 3월 말과 비교하면 약 8조5000억원이 감소했다. 실제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 2022년 24조원대에서 2023년 19조원대로 감소한 데 이어 2024년 말에는 15조원대로 급감했고, 올해 들어서는 14조원대까지 내려온 것이다.

주요 5대 저축은행(SBI·OK·웰컴·한국투자·애큐온)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SBI저축은행이다. SBI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3월 대비 올 3월 약 5561억원 감소했다. 이어 애큐온저축은행이 약 5417억원, 오케이저축은행이 약 3360억원 가량 감소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줄이는 사이, 인터넷은행이 개인사업자담보대출을 확대하며 영역을 넓히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다. 실제 카카오뱅크의 올해 2분기 여신잔액은 개인사업자대출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대출잔액은 지난해 2분기 약 1조4000억원에서, 올 2분기 약 2조5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 비중 역시 증가세다. 지난해 2분기 40%대였던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 비중은 올해 2분기 62%까지 상승했다.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재단과 같은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을 서주면, 은행이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내주는 상품을 뜻한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여신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타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주담대를 자사 상품으로 갈아타는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올해 2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약 2700억원 증가했다.

美 금리 인하에 국제 금값 꺾였다

사상 최고가 찍고 차익실현 영향
국내 ‘김치 프리미엄’ 지속 우려
전문가 “당분간 강세 지속 예상”

이달 들어서만 온스당 200달러 넘게 오르며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금(金) 가격의 상승세가 꺾였다. 미 연준이 시장 예측대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차익 실현에 금 가격이 하락했다. 빠르게 상승했던 국내 금 가격도 주춤했지만, 국내 금 가격이 국제 금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프리미엄’이 지속되면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거래에서 12월 인도물 국제 금 선물 가격은 트로이온스(31.1g, 약 8.1돈)당 3718.80달러에 장을 마쳤다. 3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직전일보다 7.30달러(0.2%) 내렸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시장의 예측대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시장에 풀려난 영향이다.

미 연준은 16~1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개최하고 0.25%포인트(p)의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확신하는 가운데, 단변에 0.50%p의 금리를 인하하는 ‘빅컷’ 가능성을 두고 전망이 엇갈렸다. 빅컷이 단행되면 추가 금리 인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 크며, 통상적으로 금 가격은 금리 인하기에 상승한다.

제품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금리 인하는 위험 관리적 인하다. 노동시장과 관련한 위험이 매우 달라졌고, 실제로 식어가고 있기 때문”라면서도 “회의에서 빅컷에 대한 광범위



종로구 한국 금거래소에 전시된 골드바.

/뉴시스

한 지지는 없었다. 그런 조치는 정책이 명백히 잘못된 방향에 있을 때 필요하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급격한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지난 17일 FOMC에서 공개된 점도표(금리 전망표)에 따르면 19명의 연준 의원 가운데 10명은 올해 말까지 0.50%p 이상의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내다봤고, 2명은 0.25%p의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6명은 현 수준에서의 금리 동결을, 1명은 0.25%p의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소식에 국내 금 가격의 상승세도 꺾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8일 국내 금 현물 가격은 g당 16만90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일 기록한 사상최고기인 17만1400원에서 2380원(1.39%) 내렸다. 다만 국내 가격이 국제 시세에 비해 2%가량 높게 형성되면서 ‘김치프리미엄(국내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에 관한 우려도 나왔다.

금은 일물일가(一物一價, 동일한 상품에 같은 가격이 적용되는 것)가 성립

하는 상품이다. 국내 금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더라도, 수요가 잦아들면 거래 물량이 많은 해외 가격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지난 2월에도 트럼프의 ‘상호관세’ 예고로 20%의 ‘김치프리미엄’이 형성됐지만, 투자 수요가 잦아들면서 국제 시세와 비슷한 수준까지 급락한 바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금값과 국제 금 시세차가 크게 벌어졌던 2월보다는 국내외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라면서도 “다만 금 수요가 잦아들면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를 맞춰갈 가능성이 큰 만큼, 투자 시에는 유의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금값이 당분간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조사회사데이터트랙(DataTrek)은 “계속된 가격 상승에도 지금의 투자 환경은 여전히 금 가격에 추가 상승 여력을 남겨뒀다”면서 “금은 지난 1년동안 43% 가량 상승했지만, 지난 1975년 이후 금이 급등할 때의 일반적인 상승률은 연간 57%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간편결제 비중 72%

간편지급 서비스 51.4% 차지
카드사 비중 줄고 ICT업체 약진

비밀번호나 지문 등 간편인증만으로 결제나 송금이 가능한 간편지급 서비스 비중이 51.4%로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 핀테크기업이 제공하는 간편지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은 72.3%로 전년보다 더 확대됐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 상반기 중 국내 지급카드 결제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급카드 이용규모는 하루 평균 3조5000억원으로 1년전(3조4000억원)과 비교해 3.7%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용카드(후불형)는 2조8060억원으로 전년 대비 4.1% 늘었다. 개인카드 이용규모는 2조22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법인카드는 586억원으로 5.2% 증가했다.

현금카드와 체크카드를 포함한 직불형카드는 698억원으로 같은기간 2.1% 늘었다. 선불카드는 일부 카드사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자가 카드사에서 전자금융업자로 변경되며 14.7% 줄었다.

지급형태별로 보면 꾸준히 비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확대되는 추세다.

상반기 비대면과 대면 지급이용 규모는 각각 1조3000억원, 1조7000억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5.8%, 1.0% 증가했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결제도 증가했다.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지급규모는 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반면 실물카드를 이용한 지급규모는 0.8% 감소했다.

모바일 기기에서 비밀번호와 지문 등을 활용해 결제하는 간편지급서비스 비중도 늘고 있다.

올 상반기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결제 중 간편지급 결제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51.4%로 1년전과 비교해 확대됐다.

카카오페이와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와 휴대폰 제조사가 제공하는 간편지급서비스 비중은 72.3%로 확대된 반면 카드사 비중은 27.7%로 축소됐다.

/나유리 기자

서울 집값 33주 연속 ↑… 매수심리도 올라

서울 아파트값이 3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매매수급지수도 올랐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셋째 주(15일 기준)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2% 상승하며 33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권역별로 보면 성동구(0.27%→0.41%)는 금호·성수동, 용산구(0.14%→0.12%)는 이촌·한남동, 마포구(0.17%→0.28%)는 공덕·성산동 주요 단지, 광진구(0.20%→0.25%)는 자양·구의동 학군지, 중구(0.16%→0.18%)는 신당·중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의 경우 양천구(0.10%→0.19%)는 목·신정동 역세권, 송파구(0.14%→0.19%)는 잠실·가락동, 서초구(0.14%→0.17%)는 서초·반포동 주요 단지, 영등포구(0.11%→0.15%)는 신길·여의도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8을 기록해 전주(100.2)보다 소폭 올랐다.

/전지원 기자 jjw13@

미국 폴더블 시장 가성비 공세에 삼성, 신기술·제품 확장으로 반격

화웨이·모토로라 점유율 급등
삼성 글로벌 점유율 반토막
트라이폴드로 새 수요 겨냥
와이드폴드로 차별화 전략
애플 진입 앞두고 선제 대응

미국과 중국의 휴대폰업체들이 '가성비'를 앞세워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의 입지가 주춤한 가운데 신제품 출시와 제품군 다양화로 반응을 노리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2분기 글로벌 폴더블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 제조사별 점유율은 화웨이가 45%로 1위를 차지했으며 모토로라는 28%로 2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전년 동기 대비 점유율이 반토막 나며 9%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 시장에서도 뚜렷하다. 모토로라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미국 플립형 폴더블폰 시장에서 점유율 78%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22%를 기록했다. 모토로라의 신작 '레이저60' 시리즈의 클립셀 모델이 인기를 끌면서 출하량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모토로라가 미국 폴더블폰 시



삼성전자 갤럭시Z폴드·플립7.

/삼성전자

장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린 배경으로는 '가성비 전략'이 꼽힌다. 모토로라가 레이저 시리즈에 기본 모델 기준 699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7월 판매호조로 연간 점유율은 회복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7월 선보인 갤럭시 Z폴드7·플립7을 앞세워 점유율 반등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특히 내년 애플이 폴더블폰 시장 진입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폴드8 제품 라인업을 다각화해 선제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내년 차기 갤럭시Z폴드8과 함께 두가지 Z폴드 8 모델을 출시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

다. 특히 화면을 두 번 접는 '트라이폴드'폰이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모델은 '스마트폰·태블릿 하이브리드'라는 새로운 영역을 제시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6.5인치 커버 스크린과 10인치 내부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휴대성과 대화면 경험을 제공한다. 아울러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 최대 16GB 램, 1TB 저장공간, 고성능 카메라를 지원하면서도 무게와 두께를 줄여 기존 대화면 기기의 단점을 보완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18:18 화면비를 적용해 정사각형에 가까운 '와이드폴드'폰도 출시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술적·제품적 우위를 선점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SK네트웍스, 스타트업 성장·투자 기회 모색

‘AI 웨이브 2025’ 개최

HF0·업스테이지 등 100여명 참석
스타트업-투자자 연결로 생태계 확대

SK네트웍스가 국내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해 AI 생태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을 열었다.

SK네트웍스는 지난 17일 서울 워커히 호텔앤리조트 웨이브홀에서 'SK네트웍스 AI 웨이브 2025'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AI 웨이브는 유망 AI 스타트업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연결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SK네트웍스가 주최하는 행사로 지난 2023년 처음 시행한 데 이어 2회째를 맞았다.

이번 'SK네트웍스 AI 웨이브 2025'는 SK네트웍스가 투자한 펀드 운영사 중 하나이자 실리콘밸리 내 가장 선별적인 AI 스타트업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명성 높은 HF0(해커 펠로우십 제로)가 후원사로 함께 했다. 또 최근 정부가 주관한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스타트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된 업스테이지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최성한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은 "기술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혁신성을 지닌 스타트업과 이를 지원하는 투자자들의



최성한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이 서울시 광진구 워커히 호텔에서 열린 'SK네트웍스 AI 웨이브 2025'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SK네트웍스

원활한 정보 교류 속에서 성장 기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자리를 통해 SK네트웍스가 2020년경부터 구축해온 하이코시스템 기반의 AI 투자 포트폴리오를 공유하고, 기술-자본-비전이 연결되는 AI 생태계 확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SK네트웍스가 AI 전략 방향성 아래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대표적인 스타트업들의 소개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선 LLM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고객에게 필요한 AI 모델과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업스테이지', 지난해 말 우리나라 최초로 제약산업에 특화된 생성형 AI 솔루션을 출시하고 국내외로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인 '피닉스랩' 등의 기술 발표가 이뤄졌다.

/차현정 기자

SK이노, 데이터센터 전력·냉각 효율화 추진

LG전자와 통합 솔루션 MOU 체결

SK이노베이션과 LG전자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전력 및 냉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 에너지·냉각 솔루션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두 회사는 전력 공급 최적화와 냉각 효율 개선을 동시에 구현해 AI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LG전자와 'AI 데이터센터 에너지·냉각 통합 솔루션 공동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회사는 국내

외 데이터센터에 통합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과일릿을 실행하고, 데이터센터 분야 기술 협력과 공동 연구개발(R&D)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두 회사는 자체 및 외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에너지 솔루션과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에너지 서비스(Energy-as-a-Service)' 사업을 공동 전개하고 데이터센터 폐열 회수 및 활용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특히 ▲공동 기술협력 ▲과일릿 실행 ▲상품화로 이어지는 중장기 로드맵을 기반으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앞으로 사업협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wkh@

LG, 스마트TV 여행 서비스 'Travel+' 첫 선

홍콩관광청과 인증샷 이벤트 진행

LG전자가 스마트TV 운영체제(webOS) 기반 신규 서비스 'LG Travel+'의 국내 출시를 기념해 오는 30일까지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LG전자는 홍콩관광청과 함께 소셜 미디어(SNS)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75명에게 홍콩 왕복항공권(25명)과 스타벅스 1만원 교환권(50명)을 제공한다.

참가 희망자는 LG 스마트TV 내 'LG Travel+' 애플리케이션에서 홍콩 지역 소개 영상을 시청한 뒤 인증샷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업로드하면 된다.

당첨자는 내달 15일 개별 메시지 및 홍콩관광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보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필수 해시태그는 LG Travel+ 앱, 라이프집 커뮤니티, 홍콩관광청 공식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G전자의 독자 스마트TV 운영체제인 webOS는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FAST)를 비롯해 OTT, 게임, 라디오, 팟캐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이번에 추가된 LG Travel+는 실제 여행을 떠난 것처럼 고화질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향후 호텔·항공권 예약 등 여행 관련 상품까지 윈스톱으로 연결하는 솔루션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희준 기자 nauta@

K-대기업, AI 등 전략산업 중심 채용 확대

삼성, 5년간 6만명 신규 채용
반도체·바이오·AI 집중 확대
한화·SK도 청년 일자리 강화

청년 일자리 확대 요구에 대기업들이 일제히 채용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반도체·AI·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신규 인력을 늘리며, 삼성·현대차·한화·SK·LG·HD현대·포스코 등이 정부 기조에 맞춰 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향후 5년간 총 6만명, 연간으로는 1만 20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신규 채용은 반도체와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주요 사업에 집중된다. 삼성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요 부품사업,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은 바이오 산업, 핵심기술로 급부상한 AI 분야 등에 집중해서 채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삼성의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고용 확대를 언급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이에 맞춰 한화그룹도 하반기 채용 규모를 크게 늘린다. 하반기 신규 채용 인원은 3500명으로 상반기(2100명) 대비 1400명 확대됐다. 방산 분야에서만 연간 2500명을 채용하고, 금융 계열사에서도 70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주요 계열사별 채용 인원은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1100명 ▲한화오션 800명 ▲한화시스템 550명 ▲한화생명 300명 ▲



'PKNU 드림 잡 페어' 현장.

/국립부경대

한화손해보험 250명 ▲한화투자증권 200명 등이다. 그룹 차원에서 인턴십 프로그램도 병행해 청년 인재 채용 기회를 넓힌다는 전략이다.

SK그룹은 하반기에만 4000여명의 청년 인재를 뽑는다. 연구개발(R&D), 반도체, AI, 디지털 전환(DT) 등 미래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모집이 이뤄진다. SK하이닉스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을 진행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청주캠퍼스 M15 증설 등 대규모 투자와 맞물려 채용을 확대한다. 현대차그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7200명을 신규 채용하고, 내년에는 이를 1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채용에는 전동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환 가속화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집중되며 신규 차종 개발, 품질·안전 관리 강화, 글로벌 사업 다각화, 브랜드 가치 증대를 위한 인원도 확충한다.

LG그룹은 3년간 1만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으로, 그중 신입 채용은 7000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LG그룹은 구광모 회장이 제시한 미래 사업 ABC(AI, 바이오, 클린테크)를 중심으로 채용을 늘리는 동시에, 계열사별로 배터리·전장, 냉난방공조 등 기업간 거래(B2B) 사업과 R&D 분야에서 우수 인재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HD현대는 올해 총 1500여명을 신규 채용하고,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조선·건설기계·에너지 부문 등 총 19개 계열사에서 1만여명의 인원을 새로 뽑을 예정이다. 이번 채용에서는 그룹 차원에서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친환경 기술, 디지털 스마트 솔루션, 수소·바이오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R&D) 인력 확보에 집중 나설 계획이다.

포스코그룹은 올해 신규채용 3000여명을 포함해 앞으로 5년간 1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당초 포스코그룹은 올해 그룹의 채용규모를 2600명 수준으로 계획했지만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400명 늘렸다.

/이승용 기자 lsy2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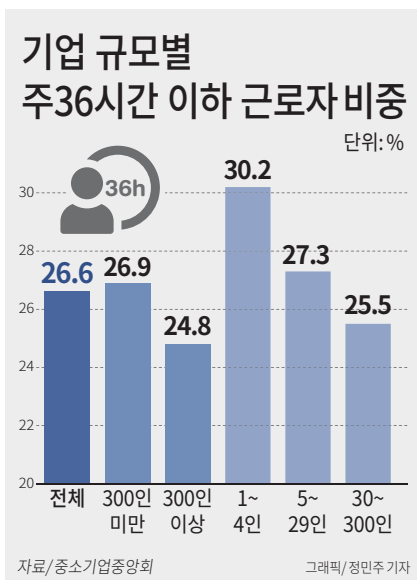
韓, 근로시간 감소폭 OECD 최고 “노사 근로연장 선택권 강화해야”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포럼 개최
10년새 연간 근로 210시간 감소
“성장·혁신 위해 예외 규정 필요”

근로시간 단축 등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중소기업계에서 주36시간 이하 근로자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 곳곳에서 이미 주4.5일제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2014년 대비 2024년 현재 한국의 근로시간은 연간 210시간 줄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근로시간은 이스라엘보다 짧아졌고 이 추세대로라면 5년안에 미국보다도 일하는 시간이 적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 중소기업 인력포럼에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의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 발표 내용에서 나왔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주4.5일, 즉 일주일에 36시간 이하 일하는 근로자 비중(2024년)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26.9%로 300인 이상(24.8%)보다 많은



등 전체 종사자가 적을 수록 증가했다. 아울러 주41시간 이상 비중도 중소기업(300인 미만)이 28.4%로 대기업(300인 이상)의 27.5%보다 많았다.

중소기업이 단시간·장시간 근로 비중에서 모두 대기업보다 높은 모습이다.

노민선 연구실장은 “중소기업에서 주36시간 이하 근로가 대기업에 비해 늘어나는 것은 근로시간 감축 정책 시행에 따른 적응, 청년들의 인식 변화, 경기 침체로 인한 자연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연 1865시간(2024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7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연간 일하는 시간은 2014년 당시 2075시간에서 지난해 1865시간으로 10년새 210시간 감소했다. 10년간 근로시간 감소폭

은 한국이 가장 컸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은 112시간, 미국은 34시간 줄어드는데 그쳤다. 우리나라 평균 근로시간은 이스라엘(1877시간)보다 짧아졌고, 미국(1796시간)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과 OECD 평균 근로시간 격차도 287시간(2014년)에서 158시간(2024년)까지 좁혀졌다.

노 실장은 “미국 실리콘밸리는 주70시간 근무에 관심있는 자만 지원하라는 공고도 있고, 중국 중관촌은 ‘996제’(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6일 근무)가 일반적인 만큼 글로벌 스타트업들은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선 주52시간 근무를 넘어서면 불법이다. 하지만 벤처기업, 이노비즈·메인비즈 등 혁신기업 등에 다니는 주요 종사자들에게 대해서 근로시간 규정 적용을 제외해야 성장과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 근로 및 성과보상에 대한 노사의 선택권 강화가 중요하다”면서 “주52시간제 틀안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단위기간 역시 주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단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5일제 전 업종, 전 직종, 전 부서에 일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부서·직무별 맞춤형으로, 또 임금감소 없는 단축과 임금감소 있는 단축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는게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18일 경기 양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 북부지역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왼쪽 두번째부터)한국섬유소재연구원 문철환 원장, 중진공 김일호 기업금융이사, 경기섬유산업연합회 조창섭 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중진공,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 팔 걷어

경기섬유산업연합회 등 업무협약
주요 생산거점인 경기북부 유기적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경기 북부지역 섬유 업계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진공은 18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섬유산업연합회, 한국섬유소재연구원과 함께 ‘경기 북부지역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국내 섬유산업의 주요 생산거점인 경기북부를 유기적으로 지원해 경쟁력 제고와 산업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

해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인건비·원부자재 상승, 설비투자 위축, 전문 인력 부족 등 지역 중소기업이 직면한 어려움 해소를 공동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상호 협력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제공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 공동 개최 ▲시제품 제작 및 시험분석 장비 등 인프라 활용 ▲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공동 건의 등이다.

중진공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사업, 내일채움공제 등 자금·수출·인력 분야의 사업을 적극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에코프로, 인니 양극재 라인 건설 본격화

니켈 제련소 추가 건설 등 2기 투자

에코프로가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4곳에 7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마무리하고 2기 투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연내 2단계 투자를 시작한다. 니켈 제련소 추가 건설 및 통합 양극재 라인 건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양극재 소재 가격을 기존 대비 20~30%가량 낮춰 삼원계 배터리 소재의 가격 혁

신을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3년간 총 7000억원이 투입된 1단계 투자로 연간 전기가 6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니켈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2030년까지 연평균 1800억 원의 투자 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는 이차전지 제조를 넘어 제련업 진출을 통해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중기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세운다

한성숙 장관, 정책 간담회 개최
“글로벌 수준 혁신 생태계 조성”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반기에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18일 ‘선배 기업이 가진 노하우와 네트워크, 후배 기업이 가진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결합하고 벤처캐피탈의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되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보다 많은 유니콘 기업, 나아가 국가대표 빅테크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정책제언은 발표할 종합대책에 반영해 유니콘 탄생을 뒷받침하는 두터운 벤처투자 시장과 글로벌 수준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AI·딥테크 분야 유망기업과 쿠팡, 토스 등 선배 유니콘 기업, 벤처투자자와 함께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정책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선 새벽배송, 핀테크 등 혁신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 선배 유니콘들이 그동안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후배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18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열린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정책과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쿠팡 박대준 대표는 “정부가 목표하는 AI 3대 강국 실현에 밑바탕이 되는 혁신 AI 스타트업들이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750억원 출자를 결정했다”면서 “쿠팡이 보유한 AI 기반 물류혁신 노하우를 토대로 투자받은 기업이 글로벌 진출에 필수적인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AI클라우드 인프라 활용, PoC 협업 등을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스 서현우 CFO는 “기업의 스케일업 단계에서 정책금융기관의 대규모 투자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해 이후 글로벌 투자유치에도 큰 도움이 됐다”면서 정부의 과감한 스케일업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자리엔 NEXT UNICORN Pr

oject’ 펀드를 직접 운용할 벤처캐피탈도 참석해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공유하고, 투자 기업 성장에 필요한 정책제언도 내놨다.

스케일업 딥테크 분야에 선정된 KB인베스트먼트 윤법렬 대표는 “이번 펀드는 기업당 평균 100억원 이상 스케일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설정한 최초의 정책펀드”라면서 “금융권 벤처캐피탈로서 새 정부 ‘생산적 금융’ 기조에 발맞추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AI융합 분야에 선정된 에이스톤벤처스 안신영 대표는 “AI 핵심 기술을 토대로 소비자나 최종 사용자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AI 전방 산업의 유망 스타트업들을 발굴해 투자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 당근마켓 ‘바로구매’ 배송

CJ대한통운이 당근마켓과 중고거래 이용자를 위한 배송 서비스를 선보인다.

CJ대한통운은 당근마켓이 지난 17일 출시한 ‘바로구매 서비스’의 배송을 전담한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당근마켓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중고거래 상품의 배송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물류 서비스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바로구매’는 판매자가 게시글을 올릴 때 바로구매 옵션을 선택하면 구매자가 결제하고 택배배송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거래 서비스다. 배송기사가 판매자 지정 장소에 도착해 상품 집화부터 최종 배송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E2E(End to End) 물류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중고상품 거래 경험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LX하우시스, ‘솔라시스템 루버’ KS 인증

LX하우시스의 BIPV(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 시스템) 제품 ‘솔라시스템 루버’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KS(국가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국내 루버 형태의 BIPV 제품들 가운데 최초 KS 인증이다.

18일 LX하우시스에 따르면 ‘솔라시스템 루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실에 공기 순환을 위해 설치한

루버의 블레이드(날개)에 태양광모듈을 적용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제품이다.

LX하우시스 솔라시스템 루버는 BIPV 제품들에 요구되는 전기·구조·안전 성능 분야의 KS규격(KSC 8577) 21가지 항목 테스트 결과 태양광모듈의 기능(전기적 요구사항)과 건축자재로서의 기능(구조적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했다. /김승호 기자

LG HelloVision

Hellorental



LG 휘센 오브제컬렉션 위너 에어컨 18+6평

월 63,900원 ↘
월 46,900원



LG 휘센 스탠드 에어컨 18평

월 51,900원 ↘
월 34,900원



삼성 벽걸이 에어컨 6평

월 17,900원 → **월 900원**



삼성 AI Q9000 에어컨 17평+6평

월 63,900원 ↘
월 46,900원



삼성 스탠드 에어컨 17평

월 51,900원 ↘
월 34,900원



LG 휘센 벽걸이 에어컨 6평

월 16,500원 → **월 1,500원**

일시불로 ~~안 샀다~~
헬로렌탈로 **잘 샀다!**

에어컨 최저가로 **잘** 사는 방법!

부담 없이 최대 60개월까지, 쓰면서 나눠내세요.

상담문의 1855-1082

rental.lghellovision.net 에서 원하는 가전을 찾아보세요

※ 표기된 월 요금은 LG헬로비전 국민카드 월 70만 원 이상 사용 시 17,000원 할인 적용가 (~24개월)
※ 본 광고의 내용은 가전사 사정에 의해 모델명, 가격 (2025.06.01 기준), 외관이 변경되거나 조기 단종 품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통사 ‘능장대응·부실보안’ 송곳 검증 예고

이통사 소액해킹·내부망 유출 등 과방위, 24일 해킹 관련 청문회 KT·LG U+ 대표, SKT 책임자 참석 정부 직권조사 제도개편 분수령

주요 통신업체들에서 보안 사고가 잇따르자 국회가 칼을 빼든다. 김영섭 KT 대표와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를 비롯한 통신 3사의 보안 최고 책임자들을 국회 청문회에 불러 KT에는 대규모 무단 소액결제 사태를, LG유플러스에는 내부망 해킹 의혹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보안 사고의 근본 원인과 기업의 책임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문회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통신사들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과 능장 대응, 그리고 부실한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17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 결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통신업체들의 해킹 관련 청문회를 24일에 연다. 이번 청문회에선 ▲ 피해 규모와 유출 범위 ▲능장 대응 및 불투명한 통보 ▲허술한 인증 체계 ▲보안 투자와 시스템 재설계 ▲이용자 보상과 경영진 책임 등 다섯 가지 쟁점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청문회의 기폭제가 된 것은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다.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하며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피해가 언론에 처음 알려진 시점보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보안조치 강화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다 무려 한 달 전인 8월 5일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피해는 산발적으로 이어지다 8월 21일과 27일에는 각각 33건, 106건으로 폭증하는 뚜렷한 이상 징후를 보였다. 이는 해커들이 사전에 치밀한 테스트를 거쳐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음을 시사한다.

비판의 핵심은 KT가 이처럼 명백한 이상 신호를 왜 조기에 감지하고 차단하지 못했느냐는 점이다. 통신사라면 응당 갖추고 있어야 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경고를 의도적으로 무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KT는 “수사 문의 후 피해자 명단 확인과 원인 파악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

요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한 달 넘게 고객 피해를 방지했다는 ‘능장 대응’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청문회에서는 사고의 최초 인지 시점, 대응 프로세스의 적절성, 그리고 의도적인 축소·은폐 시도 여부에 대한 집요한 추궁이 예상된다.

LG유플러스는 외주 보안업체 시큐어키가 해킹당하며 내부망 정보가 대거 유출되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한 해외 보안 전문지는 해커가 시큐어키의 계정 정보를 통해 LG유플러스 내부 서버 수천 대의 정보와 임직원 자료를 탈취했다고 보도했다.

LG유플러스는 “내부 침투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핵심 보안 관리의 일부를 외부에 맡기는 과정에서 통제 시스템에 심

각한 허점이 있었음을 드러냈다. 특히 관련 정황을 인지하고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직권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당국에 자진 신고하지 않은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는 현행법상 기업의 자진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청문회에서 제도 개선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SK텔레콤은 이번 증인 명단에서 CEO가 빠지고 보안 책임자가 출석한다. 하지만 지난 4월 발생한 유심 해킹 사태와 이번 유출 의혹으로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질의는 불가피하다.

이번 청문회는 제도 개편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국회는 이미 해킹 정황만으로도 정부가 직권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해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 역시 “기업 신고 이후에만 조사가 가능한 현 체계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차관 주도로 ‘정보보호 체계 대응 TF’를 꾸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장관은 “해킹 신고 이후에만 당국이 조사할 수 있는 현 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통신사들도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당국에 알릴 수 있는 신뢰 기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최수연 네이버 대표 UNGC 신임이사 선임

17년 만의 한국인 리더



네이버는 18일 최수연대표(사진)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신임 이사로 공식 선임됐다고 밝혔다. 한국인으로는 17년 만의 선임이다.

UNGC는 전 세계 167개국 2만5000여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로, 인권·노동·환경·반부패 4대 분야에서 책임 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UNGC는 최대표가 AI 기술 전 과정에서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원칙을 확립하며 AI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해 왔다고 평가했다.

최대표는 지난 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리더들과 AI 발전 방향을 제시했고, 지난해 6월에는 AI 시스템 전 주기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AI 안전성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또한 최대표는 네이버 벤처스를 설립해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에 앞장섰고, 2024년에는 ‘네이버 임팩트’를 공개해 지역사회와 중소기업, 스타트업과의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산다 오잠보 UNGC 사무총장은 “최수연 대표는 디지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글로벌 성장 전략을 제시하는 리더”라고 평가했으며, 이동건 UNGC 한국협회장은 “네이버가 국제 무대에서 지속가능경영 생태계를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 진출 본격화

위메이드는 18일 ‘프로젝트스테이블 원’ 행사를 열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위메이드는 자체 개발한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 원(STABLE ONE)’을 공개하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앞세운 새로운 금융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했다.

위메이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대중화를 통한 불편과 불안 해소 ▲전용 고성능 블록체인 구축 ▲투명성과 안정성을 갖춘 인프라 제공이라는 세 가지 핵심 방향을 내세웠다.

이어 위메이드는 지난 7년간 블록체인 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차세대 인프라 ‘스테이블 원’을 소개했다. 안운용 CTO는 “스테이블 원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호환성과 고성능 데이터 처리 역량을 갖췄으며, 규제와 보안 요건을 충족하는 블록체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더리움과 100% 호환돼 기존 서비스를 수정 없이 이전할 수 있고, 초당 3000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처리해 국내 간편결제 거래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 원’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직접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네이티브 수수료’ 방식을 도입해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

/최빛나 기자

KT, 이동통신 핵심정보 유출 정황 확인

피해 고객 362명·피해액 2.4억 IMSI·IMEI·휴대폰 번호 등 유출

KT 소액결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동통신 핵심 정보가 털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단순 소액결제를 넘어선 통신망 보안 위기가 현실화됐다.

KT는 최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악용한 소액결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국제 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 등 민감한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1일 1차 발표에서 상품권 결제 중심의 피해만 언급했으나, 1주일 만에 교통카드 등 다른 결제 영역까지 확대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KT는 기존 278명으로 발표했던 피해 고객 수가 362명으로 늘었으며, 누적 피해금액도 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확인된 불법 기지국 1 D 2개 외에 2개가 더 드러나 총 4개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약 2만명이 이들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했으며, 이를 통해 IMSI·IMEI와 휴대폰 번호가 외부로 흘러간 정황이 발견됐다.

다만 KT는 소액결제 과정에서 필요한 고객 성명과 생년월일 등은 자사 시스템을 통해 유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유심 인증키 역시 노출되지 않아 복제폰을 이용한 추가 피해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A(48·중국국적)씨와 B(44·중국국적)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8일 경기 수원시 영통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소액결제 사기 수준을 넘어, 이동통신 핵심 정보인 IMSI와 IMEI가 실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IMSI·IMEI는 단말기와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한 번호로, 외부에 노출될 경우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 등 2차 범죄로 악용될 수 있다. KT가 성명·생년월일 등 추가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가입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또 불법 기지국이 통신망에 침투할 수 있었던 구조적 허점과, 피해가 발생하고도 일정 기간 고객들에게 즉시 통보되지 않았다는 점은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꼽힌다. 현행법상 기업이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 당국이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없는 구조 역시 한계

로 지적된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시작된 것도 사건 발생한 달여가 지난 뒤였다.

KT는 “이번 사건으로 고객들에게 불편과 우려를 끼친 점을 거듭 사과드린다”며 “피해 고객 보호와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아 추가 피해 차단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KT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네트워크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초소형 기지국 운영에 대한 통제 장치와 고도화하고,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유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 2000여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고객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KB B tv+ 가입자 대상 ‘가을야구’ 티켓 제공

SK브로드밴드는 다가오는 ‘2025 신한 SOL뱅크 KBO 포스트시즌’을 맞아 B tv+ 가입자를 대상으로 ‘B tv+ 포스트시즌 직관 티켓’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B tv+는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키즈, 다큐멘터리 등 약 20만 편의 전 장르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대표 VOD 월정액 서비스다.

올해 KBO는 단일 시즌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을 달성하며 현장 경기 직관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SK브로드밴드는 이 수요에 맞춰 한국야구위원회(KBO)와 ‘2025 신한 SOL뱅크 KBO 포스트시즌’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이벤트는 B tv+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고객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응모 기간은 9월 25일까지이며, 추첨을 통해 1인 2매씩 최대 130장의 포스트시즌 직관 티켓이 제공된다. 당첨자는 9월 30일 B 월드 이벤트 페이지에서 발표된다.

응모 방법은 B tv+ 이벤트 메뉴에서 ▲와일드카드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 중 원하는 경기를 선택하고, 셋톱박스를 모바일 B tv 앱과 연결(페어링)하면 된다. 10월 추첨 시즌에는 한국시리즈 직관 티켓을 증명하는 추가 이벤트도 예정돼 있다.

/김서현 기자

“커버드콜 ETF, 총수익 하락 우려 투자원금에서 현금 당겨받은 셈”

미래에셋자산운용, 기자간담회

커버드콜 ETF 고분배 경쟁 비판
1만원 투자, 분배금 1500원 받으면
순간 ETF 가격 8500원으로 하락

“당장에 높은 분배율에 치중하면 현금
알 낳는 거위 배를 가르는 격입니다.”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
부문 대표가 18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
터원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커
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의 고분배 경
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히 “고분배
상품을 쫓다보면 시장 상승을 못 따라가
총수익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투자자들이 E
TF 분배금을 기업의 배당과 동일하게
착각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달 일정 금액이 현금으로
들어오니 마치 배당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만원을 투자한 ETF에서 1500원
의 분배금을 받으면 투자자는 ‘1500원
을 벌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순

간 ETF 가격은 8500원으로 떨어진다.
자산의 총가치(기준가+분배금)는 그대
로인데 현금만 앞으로 당겨 받은 셈이
다. 이처럼 ETF 분배금은 기업 이익에
서 나오는 배당과 달리 옵션 매도 프리
미엄이나 원금 일부에서 충당될 수 있
어, 기초자산이 오르지 않으면 결국 원
금이 깎여 나가게 된다. 금융감독원도
“분배형 ETF의 실제 손익은 분배금과
기준가 변동을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
고 경고한 바 있다.

윤병호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
운용본부장도 과열된 분배 경쟁의 위
협성을 수치로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프리미엄을 많이 쫓다보면, 분배율을
많이 쫓다보면 옵션을 많이 팔 수밖에
없고, 이는 금감원이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 상승
을 따라가는 것이 단순히 기본 좋은 일
이 아니라, 원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라
며 “2030년 6월 코스피가 5000포인트에
도달한다고 해도 20% 분배율은 감당
할 수 없고, 최소 9000포인트는 가야 유
지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코스피 200

의 지난 2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약
8% 수준이지만, 국내 커버드콜 ETF의
평균 분배율은 17%에 달해 장기 원금
훼손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운용은 이날 간담회에서 적
정 분배율로 7%를 제시하고 신규 라인
업을 공개했다. 코스피200 지수를 기반
으로 한 ‘TIGER 200타겟위클리커버
드콜ETF’와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위클리
커버드콜ETF’로 오는 23일 상장한다.
전자는 연 7% 분배율, 후자는 주식배
당을 포함해 연 10~12% 수준의 분배율
을 목표로 하며, 각각 매월 15일과 말일
에 분배돼 투자자는 격주 현금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커버드콜의 원래 목적은
오랫동안 모은 연금을 인출해 은퇴 생
활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라며 “20·30세대가 연금을 적립하는 시
기에 커버드콜 상품은 적합하지 않고
투자자분들께 적절한 분배율의 의미,
7%로 충분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원 및 직원들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앞에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및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 금소원 분리 등 철회하라”

금감원 직원 1200명 옥외집회

“금소원 분리 결사반대”, “관치금융
중단하라”

금융감독원 직원 1200여 명이 18일
점심시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모였
다.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 철회
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직원들
이 옥외집회를 연 것은 지난 2008년 금
융감독기구 개정 반대 집회 이후 17년
만이다. 이들은 “합리적 논의가 생략
된 채 졸속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
다”며 “소비자보호에 역행하고 금융시
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위험한 결정”이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합리적 논의 생략, 졸속 입법
금융시장 안정성 해치는 결정”

“감독-소비자보호 불가분 관계
분리면 오히려 금융사고 위험”

이날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
을 통해 정부 개편안이 금융정책과 금융
감독을 인위적으로 분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금감원을 공공기관
으로 지정해 기재부의 하위기관으로 전
락시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태완 비
대위원장은 “오늘의 집회는 조직 이기주
의가 아니라 국민과 소비자를 위한 최소
한의 안전망을 지키기 위한 외침”이라며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는 불가분
의 관계인데 이를 분리하면 오히려 금융
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해의 사례도 들었다. 영국
은 2000년대 초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
위 감독을 분리해 운영하다 대형 보험
사 파산과 금융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결국 제도를 다시 통합했다. 호주 역시
초대형 보험사 HIH 파산, 연금운용사

트리오캐피탈 금융사기 등으로 감독기
관 간 책임소재 불분명, 정보공유 단절
의 부작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어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한 해외 사례
는 정부안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증거”
라고 덧붙였다.

현장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
민국·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이 참석해
의견을 보냈다.

직원들의 자유발언은 관료집단 비판
으로 이어졌다. 한 직원은 “책임지지 않
는 ‘모피아’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모두 장악하려 한다”며 “서민의 금융안
전망을 외면하는 관료들에게 금융감독
을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
은 “재경분리라는 구호는 달콤하지만
결국 독약이 될 것”이라며 “서민이 짊어
질 청구서는 늘어나고 관료들은 책임
을 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또 개편안을 주도한 인사
로 김은경 전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목했다. 이들은 “국가의 명운을 결정
할 중대한 사안임에도 합리적 논의가
생략된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김 전 처장 등 국정기획위 인사들과 각
계 전문가, 금감원 직원이 참여하는 공
청회 등 민주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
다”고 요구했다.

대통령과 국회를 향한 주문도 나왔
다. 금감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
시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회가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성과를 직접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에게는 “금융소
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감원 업무 전
반을 쇄신해야 한다”는 요구도 덧붙였
다. 짧지만 강렬했던 45분간의 집회는
“개편이 아니라 개혁”이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허정윤 기자

리얼티파인 ‘미래투자’ vs 머스트자산 ‘주주환원’

리파인, 1·2대 주주간 갈등 고조
24일 ‘자본준비금 감소 건’ 임시주총

코스닥 상장사인 리파인을 두고 1, 2
대 주주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대
주주 리얼티파인은 미래 투자에 방점을
두는 반면, 머스트자산운용은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리파인은 오는 24일 임시주주
총회를 소집해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만을 다룬다. 안건은 머스트자산운용
측이 요구한 것이다. 머스트자산운용
은 리파인의 자본준비금 약 858억원을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 전입할 것을
주장한다.

자기자본을 주주환원에 활용하면 자

기자본이익률(ROE)를 개선할 수 있다
는 논리도 편다. 머스트자산운용은 지
난 1일 공개서한에서 “리파인의 재투자
가 거의 필요 없는 사업모델을 고려할
때 500억원의 자기자본만으로도 충분
히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며 “과도하게
쌓인 자본을 주주환원에 활용해 ROE
를 40~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
다”고 제언한 바 있다.

사실상 대규모 배당을 챙기려는 속
셈이란 게 금융투자업계 시각이다.

최대주주인 리얼티파인 컨소시엄의
생각은 다르다. 명분 약한 대규모 주주
환원 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인수·합병(M&A) 등 신사업 투자에 돈
을 써야한다고 주장한다.

리얼티파인은 스톤브릿지캐피탈과

LS증권이 손을 잡은 컨소시엄이다. 이
들은 지난해 12월 리파인 구주 약 34%
를 1603억원에 인수했다. 이어 리파인
의 자사주를 기반으로 발행된 355억원
어치 교환사채(EB)를 인수하고 이를
주식으로 전환해 추가로 13% 지분을
취득했다.

회사측은 EB로 조달한 자금으로 투
자를 계획하고 있다. 리얼티파인 관계
자는 “기존에도 1300억원의 현금이 확
보돼 있었지만,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
화뿐 아니라 신사업 추진과 M&A 등
사업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
성장 도모를 위해서는 자금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투자를 통해 회사를 성장
시키는 것이 진정한 주주환원이라고 생
각한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회계투명성 위한 첫 걸음”

한공회 ‘지역투명성위원회’ 출범
50개 지역 858명 공인회계사 참여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7일 서울
코리야나호텔에서 위원회 출범식을 열
고 전국 단위의 회계투명성 강화 활동
을 본격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위
원회는 “함께 만드는 투명한 지역, 함께
누리는 신뢰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공익
활동에 접목시키는 데 방점을 뒀다.

출범식은 위원장 출범사, 오세훈 서
울시장의 영상 축하, 외빈 축하, 위촉
식, 선언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소
영철·허훈·정지웅 서울시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전국 각 지역 회
계사 위원들이 위촉장을 수여받고 공



지난 17일, 서울 코리야나호텔에서 열린 ‘지역투명성위원회’ 출범식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최
운열 회장(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과 지역투명성위원회 지역위원장 및 위원 등 참석자들이 기
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식 활동을 시작했다.

최운열 회장은 “위원회의 출범은 단
순한 조직 신설이 아닌 회계투명성을
공약으로 환원하는 공인회계사들의 결
의가 담긴 역사적 첫걸음”이라며 “더 투
명한 사회와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영상 축하사에서 “위
원회의 사회적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서울시도 비전을 공유하며 시
민들이 체감할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
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한국투자 ‘ACE 유럽방산TOP10 ETF’

시총 상위 10종목 투자… 23일 상장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오는 23일 ACE
유럽방산TOP10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18일 밝혔다.

ACE 유럽방산TOP10 ETF는 유럽에
상장된 종목 중 방위산업 매출 비중이 높
은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 투자하는 상
품이다. 종목 편입비는 매출액 성장률 예
상치 등을 종합해 결정하며, 종목당 최대
20% 수준까지 편입할 예정이다. 기초지
수는 ‘NYSE FactSet Europe Defense

Top10 Index (Price Return)’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유럽 방산기업
에 주목한 이유는 ‘성장성’이다. 글로벌
안보 지형이 변화하며 유럽 국가 상당수
가 방위비를 증액하는 기조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
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3550억 달
러 수준이었던 유럽의 방위비는 오는
2029년까지 8712억 달러로 약 145% 증
가할 전망이다. 미국(14%)이나 중국
(40%) 등 국가와 비교할 때 압도적인 증
가세를 기록하는 셈이다. /허정윤 기자

김정관 산업장관, ‘1일 행사 준비요원’ 현장 점검

국내외 기업협력 통한 수출확대

2025 APEC 경주 경제인 행사

경제인 숙소 1박 체험하며 준비
행사 동선·편의까지 꼼꼼히 확인
글로벌 기업 협력으로 투자 촉진
K-기업 도약 발판 될 기회 강조

내달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열리는 경제인 행사장 현장 점검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나섰다. 역대 최대 규모 행사인 만큼 글로벌 기업과 한국 기업 간 협력의 장으로 만들어 투자와 수출 확대 등 실질적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각오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경주를 방문해 행사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그는 이날 하루 ‘행사 준비요원’으로 나서 APEC CEO 서밋이 열릴 예술의 전당을 비롯해 화랑마을(CEO Summit 만찬), 화백컨벤션센터(정상회의) 등 주요 행사장을 돌며 조성·운영 계획, 참가자 동선, 수송·식사·안내 등 지원체계를 꼼꼼히 살폈다. 특히 경제인 숙소 중 하나인 강동리조트에 직접 숙박하며 참가자 편의성까지 체험하는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확인했다.

김 장관은 이어 열린 ‘APEC 경제인 행사 추진위원회(민간추진위)’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성공적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 시각에서 제안된 의견을 청취하며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



최태원 SK회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다. 김 장관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APEC 경제인 행사를 역사상 가장 의미 있고 성공적인 행사로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번 행사는 K-기업의 저력을 보여줄 기회의 플랫폼이자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등과 협력해 다양한 경제인 행사를 준비 중이다. 즉 ▲CEO 서밋 및 부대행사(퓨처-테크 포럼, K-Tech 쇼케이스 등)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수출 붐업 코리아 등 연계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소통 확

대, 공동 프로젝트 발굴, 투자 촉진, 수출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APEC 정상회의 주간 동안 경주에서는 20여 개 세션이 진행되며, 각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들이 연사로 참여한다. 인공지능(AI), 조선, 방산 등 전략 산업을 주제로 한 퓨처-테크 포럼, 로보틱스·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을 전시·홍보하는 K-Tech 쇼케이스도 열린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제인 행사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성과창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송미령 “농촌관광, 지역경제 핵심 역할”

농식품부 장관, 오성한옥마을을 점검
추석연휴 농촌관광 홍보 캠페인

정부가 농촌관광상품 할인을 지원하는 등 을 추석연휴 기간에도 전국 각지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송미령 장관이 직접 사전점검에 나섰다. 그는 18일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소재 오성한옥마을을 둘러본 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농촌관광 상품 할인, 홍보 캠페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

원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촌관광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공동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이어 “추석 연휴를 계기로 가족 단위와 단체 관광객이 농촌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성한옥마을은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조성된 곳이다. 송 장관은 마을 관계자들과 함께 다도 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간담회를 통해 마을 운영

현황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 한옥 숙박시설(죽림원소담원 등)과 관광코스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 농촌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농촌 체험휴양마을을 시설·프로그램 운영 준비 상태를 확인하는 동시에, 국민이 뽑은 2025 농촌여행지 ‘스타마을 20’의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월 하순 농촌 체험휴양마을을 대표하는 20개 마을이 선정된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전·신복위, 전기요금 채무조정 본격 도입

서민금융법 개정 맞춰 제도 본격 추진

한국전력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손잡고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채무조정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한전은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신복위와 함께 전기요금 채무조정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 시행(9월19일)에 맞춰 개인

채무조정 대상자의 연체 전기요금을 금융 채무와 통합해 조정하는 제도를 본격 추진하게 된다.

양 기관은 법 개정 이후 실무 협의를 거쳐 디지털 기반 채무조정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청부터 심사, 동의, 확정 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금융 채무가 있는 개인이 정상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복위에 ‘금융·전기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하

면 신복위에서 한전으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게 되고, 다음날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이후 신복위 심사를 통해 채무 조정이 확정되면 원금의 최대 90% 감면과 최대 10년 장기 분할상환 등이 가능해져 신청자가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가 조정된다. 제한·단전됐던 전기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백우기 한전 영업본부장은 “한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넘어 국민 생활 안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21세기말 평균기온 최대 7도 상승

환경부·기상청, 기후위기 평가 보고서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21세기 말 한반도 연평균 기온이 최대 섭씨 7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폭염 일수는 현재 연평균 8.8일인데 최장 79.5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환경부와 기상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기후위기 연구 동향과 전망을 집대성한 자료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4차례 발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재작년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각각 14.5℃, 13.7℃로 역대 1·2위를 기록했다.

최근 7년간(2018~2024년) 온난화 추세가 강해진 점도 확인됐다. 1912~2017

년의 기온 상승률은 10년마다 0.18℃였으나 1912~2024년에는 0.21℃로 더 높게 나타났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평균 폭염일수는 15.6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폭염일수와 연평균 기온에 관한 전망도 제시했다.

21세기 말(2081~2100년)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온실가스 감축 정도에 따라 최소 2.3℃에서 최대 7℃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2.3도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률을 2도 이내로 억제했을 때를 가정한 ‘낮은 단계 기후변화 시나리오(SSP1-2.6)’에 해당하는 전망이다. 또 7도는 온실가스가 지금처럼 계속 많이 배출되는 경우를 전제한 ‘매우 높은 단계의 기후변화 시나리오(SSP5-8.5)’에서의 예상 결과다.

/김연세 기자 kys@

농협, 청년여성농업인 직거래장터 운영

추석 선물용 과일 등 농산물 선배

농협중앙회가 청년여성농업인의 판로 확대를 위한 직거래장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 17일 시작된 행사는 20일까지 서울 도봉구 농협하나로마트 창동점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소속 회원 9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추석 선물용 과일, 쌀 가공식품 등 다양한 농산물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도심 소비자와의 만남을 확대하고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농협은 청년여성농업인이 농산물 생산을 넘어 유통·판매까지 주체적으로 참

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통채널을 연계하고 있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년여성농업인의 정성과 품질이 담긴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실질적인 판촉의 장이 될 것으로 농협은 기대했다.

행사장을 찾은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김일한 부장은 “청년여성농업인은 농촌의 미래이자 변화의 주체”라며 “앞으로도 농협은 청년여성농업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이철원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위원과 전청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 전사 감사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동서발전

동서발전, 인공지능감사·윤리현장 공식 제정

“공공부문 윤리적 인공지능 활용 선도”

한국동서발전이 정부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정책에 발맞춰 공공부문 윤리적 인공지능 활용을 선도한다. 동서발전은 지난 16일 울산 본사에서 ‘2025 인공지능 감사·윤리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최초로 ‘인공지능 감사윤리 현장’을 수립·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이고 투명한 활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세미나에서 인공지능 윤리분야 전문가인 전청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이 ‘인공지능 감사윤리’에 대한 특별 강연을 통해 인공지능이 가져올 혁신

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쟁점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공유하며 인공지능 기술과 기업 가치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행사에서 동서발전 열린감사실은 ‘인공지능 감사·윤리 현장’을 공공기관 최초로 공식 선포하며 회사의 인공지능 윤리성을 선도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인공지능 감사·윤리현장은 △인간중심 인공지능 활용 ▲공정성 확보와 차별방지 ▲정보보호 및 데이터 윤리준수 ▲명확한 책임성 확립 ▲사회적 공공성 실현 등 인공지능 활용 시 준수해야 할 10대 감사·윤리 원칙이 담겼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제2회

 G밸리 Gvalley Art Show **아트쇼**

그림 속에서
나를
발견
하다

STEP1. 푸른 청춘의 외침展

2025. 9. 1월 - 9. 13토

관람일시(월요일~토요일) 11:00 - 20:00 *일요일휴관

STEP2. AI아트展 & AI영상 광고展

2025. 9. 15월 - 9. 27토

관람일시(월요일~토요일) 11:00 - 20:00 *일요일휴관

STEP3. 디지털에 마음을 담다展

2025. 10. 22수 - 11. 8토

관람일시(월요일~토요일) 11:00 - 20:00 *일요일휴관

가산 **SK V1 center** 20F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71(아쿠아픽 본사 내)

*전시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청년작가 및 AI작가 전시지원에 사용됩니다 *전시 및 작품 문의 02-6743-3303

주최 **G밸리아트쇼 조직위원회**

 **KIBA**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Korea Industrial Business Association

주관 **SOHWASO**

후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aquapick**  가산 **SK V1 center**
아쿠아픽

서울시교육청, 시각장애 교원 AI·에듀테크 전문성 높인다

AI·에듀테크 장애인교원지원단
‘동료 교원 주도형 지원체계’ 핵심

연수에 전문가 참여… 실효성 높여
매뉴얼 접자·오디오북 형태 보급
시각장애 학생 지도에도 활용 기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AI·에듀테크 장애인교원지원단’을 꾸리고, 시각장애 교원의 수업 활용을 돕기 위한 맞춤형 연수를 시작했다. 시각장애 교원 주도의 새로운 지원 체계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과 수업 접근성을 대폭 높인다는 구상이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지원단의 핵심은 시각장애 교원이 중심이 되는 ‘동료 교원 주도형 지원 체계’다. 참여 교원들이 AI·에듀테크 도구의 접근성과 수업 활용성을 직접 탐색·실습해 역량을 키운 뒤, 향후 타 시각장애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확산을 도모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AI·에듀테크 장애인교원지원단’을 꾸리고, 시각장애 교원의 수업 활용을 돕기 위한 맞춤형 연수를 지난 10일 시작했다. /서울시교육청

으로 확산을 도모한다.

연수 과정은 사전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회의를 거쳐 시각장애 교원의 실제 수업 환경과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설계됐다. 특히 2025년 AI·에듀테크 선도교사단, 시각장애인 대상 AI·디지

털 연수 강의 역량이 있는 외부 전문가, 웹접근성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연수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총 6일간 서울 에듀테크 소프트웨어에서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과정을 통해

접근성을 고려한 AI·에듀테크 서비스 목록과 기본 매뉴얼을 제작해 접자와 오디오북 형태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시각장애 교원의 수업 준비와 운영을 지원할 뿐 아니라, 시각장애 학생 지도에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현장에는 어떤 에듀테크 플랫폼이 접근 가능한지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각 교원이 개별 탐색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교원과 비장애 교원, 접근성 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원단을 구성해 연수와 연구를 병행, 현장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연수에 참여한 지원단 소속 시각장애 교원은 “AI와 에듀테크는 나의 수업에서 불가능했던 영역을 열어주는 새로운 눈과 손이 되었다”며 “앞으로 아이들과의 수업도 더 넓고 풍성하게 펼쳐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AI와 에듀테크는 모든 학생과 교원이 차별 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리게 하는 도구여야 한다”며 “시각장애 교원들의 도전과 실천이 교실을 넘어 교육현장 전체의 혁신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문해·수리력 진단’ 에스플랜, 전국확산 첫발

서울시교육청-부산시교육청 ‘맞손’
CBT 시스템 활용 동일한 환경서 진단
타 시·도 교육청과의 연대 확장 도모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주도한 문해력·수리력 진단도형 ‘에스플랜(S-PLAN)’이 부산시교육청과의 공동 운영을 통해 전국 확산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2023년 서울시의회 지원으로 전국 최초 개발된 S-PLAN은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가 검증된 컴퓨터기반 검사(CBT) 진단도구로, 학교 현장에 축적된 문해 개발 프레임워크와 운영 경험을 타 시·도로 공유하는 선도 모델이 된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두 교육청은 내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구축

한 CBT 시스템을 함께 활용해 동일한 환경에서 진단을 실시한다. 문해 개발 워크숍에는 양 시·도의 교사가 공동 참여해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진단 결과가 수업 개선과 맞춤형 지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피드백 체계를 정비한다. 2026년부터는 공동 문항을 직접 개발해 함께 사용·운영하는 단계로 협력을 확대, 표준화된 진단·분석 플랫폼을 기반으로 학년·학교·지역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기 협의제도 가동한다. 기술 교류와 인적 교류를 병행해 채점·통계·보고서 자동화 같은 운영 기술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문항 풀을 지속적으로 보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협력을 발판으로 타 시·도교육청

과의 연대도 넓혀 공동 연구·기술 개발·정책 연계를 추진, 진단·수업·평가의 선순환을 전국 단위로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부산을 시작으로 17개 시·도교육청에 S-PLAN을 확산하는 첫 걸음”이라며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학생 개개인 맞춤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청 간 협력은 교육 혁신의 중요한 동력”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한편, 18일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은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개발 및 운영’에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식을 갖고 협력을 공식화한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5070 중장년 경력전환·재취업 지원

오는 23일 일자리박람회 진행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23일 광주하남상공회의소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광주’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가 시군 순회형으로 추진하는 ‘경기 5070 그레이트잡투어(Gray it-job tour)’의 일환으로, 50~70대 중장년층의 경력 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레이트잡투어’는 중장년층을 상징하는 Gray, 주목받는 It, 일자리를 찾아가는 Job Tour의 의미를 담고 있다.

광주시는 전통제조업과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중장년층의 직무

전환과 재취업을 돕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활발히 추진해왔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뿌리산업, 물류 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 연계 채용뿐만 아니라, 재교육 프로그램, 커리어 컨설팅, 재무 상담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행사 현장에는 보성특산교역, 구광폴립먼트 등 지역 우수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용과 1대1 면접을 진행하며, 현장 참여가 어려운 기업은 채용게시대를 통해 이력서 접수·전달 방식을 활용한다. 총 40여 개 기업이 이번 박람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광주시일자리센터, 광주시니어클럽 등 지역 유관기관이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광명시, 전국 최초 ‘기본사회 조례’ 제정

내달 2일 공포 동시에 효력 발생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하며 기본사회 선도도시로서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가 지난 17일 열린 제 2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오는 10월 2일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홍보 등 기본사회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담겼다. 특히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조항이 포함돼, 시민 주도의 정책 실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위원회는 시장과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을 포함해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등 최대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추천 의원, 시민사회단체, 청년, 장애인, 노인 등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 13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제8회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에서 기본사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명시

다양한 시민 대표가 참여해 정책 전반에 시민 의견이 반영된다.

광명시는 그동안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꾸준히 시민 참여 기반을 마련해왔다. 지난 3월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2025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109건의 제안을 접수했고, 이 중 7건을 실행안으로 확정했다. 또 지난 13일 열린 ‘500인 원탁토론’에서는 438명의 시민이 참여해 45건의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광명(경기)=김대의 기자

‘서울 캠퍼스타운’, RISE 연계로 첨단산업 창업 지원

서울대·중앙대 등 13개 대학 선정

서울대학교와 중앙대학교 등 13개 대학이 참여하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이 올해 출범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연계해 AI·바이오 등 첨단산업 창업의 지속 성장 체계로 강화된다. 창업팀 발굴부터 기술사업화·글로벌 진출까지 대학의 전주기 지원을 확대해 서울을 청년 창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대학·자치구와 함께 청년 창업가에게 공간과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을 2026년부터 수행할 13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선정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다.

‘서울 캠퍼스타운’은 시와 대학, 자치



서울시청. /메트로신문

구가 대학이 가진 공간과 인재를 창업 기반으로 활용해, 창업팀발굴·육성·사업화 등 전 주기에 걸쳐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서울시 대표 창업 육성 사업이다. 캠퍼스타운 사업은 올해 출범한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라이즈)와 연계해 추진된다.

이번에 선정 대학은 2026년부터 기본 2년간 사업을 추진하며, 대학별 12억원 씩 총 156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각 대학은 학교별 특화 분야 중심 세부 프

로그램을 설계해 연간 50팀 이상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할 예정이다.

2년 차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 우수 대학(70%)에는 사업 기간 연장(최대 2년) 및 사업비 차등 지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반면, 성과가 미흡한 대학(30%)은 3년 차부터 사업이 중단되고, 시에서 재공모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히 창업 공간을 확충하는 단계를 넘어, 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스케일업(Scale-up) 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질적 성장 체계로 전환해 2030년까지 39개 이상의 ‘아기유니콘’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캠퍼스타운 사업을 서울시가 추진 중인 AI·바이오 등 첨단산업 혁신거점과 연계해 창업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2차 쿠폰에 편의점 ‘신바람’… 생필품·식료품 등 할인전

22일 1인당 10만원 소비쿠폰

GS25, 리얼프라이스 등 최대 25%
CU, 생필품 번들상품 69% 할인
세븐일레븐·이마트 24도 할인 동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임박한 가운데 유통업계에선 희비가 갈리고 있다. 1차 지급 당시 소비쿠폰은 매출 증대 효과로 이어졌지만 백화점·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부분 유통 채널이 사용처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2차 지급 이후에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일한 수혜처로 꼽히는 편의점 업계는 대대적인 행사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달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약 1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된 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소멸한다.

지난 1차 소비쿠폰 지급 당시 유통업계는 뚜렷한 소비 진작 효과를 봤다. 한



한 주민센터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안내하는 모습.

/뉴시스

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차 지급 후 4주간 전국 소상공인 신용카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4% 늘었다. 이 중 유통업은 16.47% 증가하며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은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대다수 유통업계 채널은 수혜 대상에서 벗어났다.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하에 백화점, 대형마트, SSM, 면세점 등이 사용처에서 원천 배제됐기 때문이다. 특히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형 SSM은 1차 당시 소상공인 점포임에도 배제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지만, 2차 지급에서도 사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SSM 중 47%가 가맹점으로 운영되며, 월 평균 매출액이 3억원 대에 불과하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많은 SSM이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 의해 운영되는데도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브랜드 이

름 기준이 아닌, 개별 점포의 매출액 기준으로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규제 속에서 유일하게 이익을 얻는 곳은 편의점이다. 1차 지급당시에도 편의점은 소비쿠폰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달 편의점 앱인 GS25의 ‘우리동네GS’와 CU의 ‘포켓CU’ 월간 활성이용자수(MAU)는 각각 481만 명과 266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소비쿠폰 특수로 편의점 월간 매출은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품목별로 보면 CU에서는 즉석밥(37%), 라면(32.6%), 주류(19%) 등 생필품 및 식료품 매출이 급증했으며, GS25 역시 국산우유(176.8%), 계란(48.6%) 등 신선식품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이러한 1차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편의점 4사는 2차 지급에 맞춰 대규모 할인전에 돌입한다. GS25는 PB ‘리얼프라이스’ 상품군을 중심으로 최대 25%

할인 행사를, CU는 생필품 번들 상품을 최대 69% 할인 판매한다. 세븐일레븐은 ‘민생회복 초특가전 2탄’을 열고 2200여 개 상품을 대상으로, 이마트24는 3021종에 달하는 상품을 대상으로 ‘1+1’, ‘2+1’ 행사를 진행한다.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 대형마트도 추석에 맞춰 자체 할인 행사로 맞불을 놓는다. 롯데마트는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조절약 쇼핑대전’을 진행한다. 이마트는 긴 연휴 감장 수요에 대비해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절임배추 특별 사전예약 행사를 진행한다. 홈플러스는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홈플러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상품을 할인하는 ‘홈플러스상품 워크’ 2주차 행사를 전개한다. 1차 지급당시에도 대형마트들은 자체 행사를 통해 고객 발길을 붙잡는 전략을 펼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고객들이 고물가 속 합리적인 가격에 명절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오뚜기, 고객만족도 라면부문 3년연속 1위

NCSI 80점… 전년비 1.3% 상승

오뚜기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2025년 3분기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라면 제조 부문 3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NCSI는 한국생산성본부와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개발·발표하는 국가 차원의 고객만족도 지수로,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소비자 평가를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을 측정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1개월 이내 라면을 직접 구매해 주 1회 이상 섭취한 만 16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 5대 광역시에서 성별·연령별 표본을 배정해 총 1112명이 참여했다. 올해 3분기 라면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오뚜기의 고객만족도(NCSI) 점수는 80점으로 전년 대비 1.3% 상승하며 업종 평균(79점)을 웃돌았다. 세부 항목별로는 ▲고객 기대수준 81점 ▲인지품질 82점 ▲인지가치 75점에서 모두 업계



오뚜기라면 이신혁 사장(오른쪽)이 17일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5 국가고객만족도조사(NCSI)’ 시상식에 참석해 조선일보 홍준호 대표이사와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뚜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고객 충성도는 61점으로 전년 대비 3.4% 상승해 브랜드 충성도가 크게 강화되었으며, 이러한 개선이 전체 고객만족도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뚜기는 올해 출시 37주년을 맞은 대표 라면 ‘진라면’을 앞세워 방탄소년단 진과 함께한 글로벌 캠페인 ‘진짜 Love’ 등 다양한 국내외 광고와 프로모션을 통해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신원선 기자

현미·보리·잡쌀 ‘황금배합’ 식사이론 잡곡주먹밥 2종

롯데웰푸드 ‘저속노화’ 트렌드
1개당 전자레인지 2분 간편조리

롯데웰푸드는 현미, 보리, 잡쌀 등 잡곡 3종을 황금비율로 배합해 구수한 풍미와 톡톡 씹히는 식감이 매력적인 ‘식사이론 잡곡주먹밥’ 2종(참치마요, 차돌김치)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저속노화(Slow Aging)’ 트렌드에 맞춰 혈당지수(GI)가 낮은 잡곡을 활용한 냉동 주먹밥으로 든든하고 간편하게 한 끼 식사를 챙길 수 있는 제품이다.

‘식사이론 잡곡주먹밥’은 고온으로 구워낸 겉은 누룽지처럼 노릇하지만, 속은 갓 지은 밥처럼 고슬고슬해 살아있는 밥알을 자랑한다. 자극적이지 않은 깔끔한 맛으로 마지막 한 입까지 물

리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 D-소비톨액,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용성안나토 등을 첨가하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즐기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식습관까지 챙길 수 있는 제품이다. 제품은 하나씩 꺼내 먹을 수 있도록 개별 포장했다. 또한, 주먹밥 1개 기준 전자레인지에 2분만 조리하면 돼 매우 간편하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저속노화 트렌드 속 식습관과 생활 방식 전환을 바꾸려는 소비자들의 움직임에 발견하고 식사이론 잡곡주먹밥 2종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식사이론은 간편식 시장의 대표 웰스&웰니스 브랜드로서 3040세대의 집밥에 대한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간편식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지난 17일, 국순당 신우창 연구소장(왼쪽)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방혜선 농업생물부장이 국가 미생물 장기 안전중복보존 서비스 실시를 위한 산업미생물 안전중복보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국순당

국순당-국립농업과학원 50년 선별 양조미생물 미생물은행 중복 보존

국순당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국가 미생물 장기 안전중복보존 서비스 실시를 위한 산업미생물 안전중복보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순당이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선별해온 우수 양조미생물의 자체 보존과 동시에 국가의 미생물은행에서 안전하게 중복으로 보존되게 됐다.

농업미생물은행은 국순당의 전통주 양조 미생물들을 생물 보존에 가장 이상적인 보존법인 액체질소보존법과 초저온보존법으로 안전중복보존한다. 전통주 등 주류업계가 보존 중인 미생물에 대해 국가가 중복 보존한 사례는 업계 최초이다.

국순당은 국가 미생물은행에 백세주 및 국순당막걸리를 빚는데 사용되는 누룩곰팡이와 효모, 유산균 등 주요 양조미생물 등을 보존할 예정이다. 국순당은 고서에 소개된 생썬발효법을 연구, 전통 누룩에서 분리 선별한 우수한 양조 미생물로 우리나라 전통주 시장을 개척한 백세주와 생막걸리의 전국 유통 시대를 개척한 국순당 생막걸리 등을 개발했다. /신원선 기자

2주간 ‘처음처럼’ 논현 영동시장’ 팝업

롯데칠성음료, 지하철역 콘셉트 기획

롯데칠성음료가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2주간 서울 논현 영동시장에서 ‘처음처럼’ 논현 영동시장’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처음처럼’으로 환승하세요’란 지하철역 콘셉트로 기획된 이번 팝업 스토어는 논현 영동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 호기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하철 출입구 형태의 입구와 ‘처음처럼’의 주원료인 암반수 체험 공간, 기념 촬영을 위한 처음처럼 대형 구조물 등으로 이뤄졌다.

또한, 팝업 스토어를 방문한 고객에

게 간단한 질문을 통해 ‘부드러움 라인’, ‘100% 암반수 라인’, ‘정통 소주 라인’, ‘처음처럼 라인’과 같이 4가지 콘셉트로 묶여진 논현 영동시장 상권의 주요 맛집을 추천하는 콘텐츠도 운영할 예정이며, 지하철 역무원으로 분장한 행사 인원들이 ‘더 부드러운 처음처럼’으로 환승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앞으로도 ‘처음처럼’은 다양한 상권에서 100% 암반수, 부드러운 묵념김 등 더 부드러운 ‘처음처럼’의 차별적인 핵심 가치를 강조하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신세계그룹, 10개 계열사 신입사원 공채

내달 13일까지 채용홈피서 접수

신세계그룹이 이달 19일부터 2026년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인턴십 과정을 폐지하고 서류와 면접 전형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등 채용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채용에는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SCK컴퍼니(스타벅스),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디에프(면세점), 신세계I&C, 신세계센트럴, 신세계푸드, SSG닷컴, 신세계라이브쇼핑 등 총 10개 계열사가 참여한다. 서류 접수는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신세계그

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서류 전형 결과는 10월 말에 발표된다.

신세계그룹은 올해부터 채용 연계형 인턴십을 없애고 최종 합격자를 바로 선발한다. 이에 따라 최종 합격자는 기존보다 한 달 빠른 내년 1월에 입사하게 돼, 조기에 진로를 확정하고 안정적으로 경력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그룹 측은 설명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올해부터 인턴십 과정을 없애 신속하고 집중도 높은 채용을 진행함으로써 지원자들에게는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회사는 미래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더 넓게 더 청량하게”… 주류업계, ‘풀오픈캔’ 경쟁력 강화

윙뚜깅 전체가 열리는 방식
MZ세대 믹솔로지 제품 각광
업계 “장기적 수요 유지 관건”

“전체가 열려 더 시원하다”는 소비자 반응과 함께 국내 주류업계에 ‘풀오픈 캔’ 바람이 거세다.

풀오픈캔 제품은 윙뚜깅 전체가 열리는 방식으로 기존 캔맥주보다 입구가 훨씬 넓어 입 안 가득 퍼지는 탄산감과 시원한 목넘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개량감이 크다 보니 마치 직접 따듯한 청량감을 제공하며, 내용물이 한눈에 보여 위생적 신뢰감도 높다. 또 입구가 넓어 다른 주류를 섞어 마시기도 좋아 MZ세대 사이에서는 믹솔로지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같은 반응에 국내 업체들의 적극적인 대응하고 있다. 오비맥주, 롯데칠성음료 등 주요 주류 기업들이 앞다퉈 풀오픈캔 신제품을 내놓으며 시장 선전에 나서고 있다.

오비맥주의 라거 브랜드 ‘한맥(HAN MAC)’은 지난 7월 캔 내부에 특수 설계를 적용, 개봉 후 시간이 지날수록 밀



크리시 풀오픈캔 포스터

/롯데칠성음료

도 높은 거품이 스스로 형성되는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 캔’을 출시했다. 기존에는 생맥주나 전용 거품기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풍성하고 지속력 있는 거품을 캔 속에 구현해 큰 화제를 모았다. 특히 출시 4주 만에 일부 매장에서 일시 품절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소비자 반응이 뜨거웠으며, 이에 힘입어 이달부터 판매 채널을 전국 편의점으로 확대했다.

오비맥주는 전국 주요 편의점 입점과 함께 한정판 기획팩도 선보였다. 330ml 16캔 기획팩에는 탈·부착 가능한 전용 ‘캔 핸들’을, 12캔 기획팩에는 시원한 음용을 돕는 ‘캔 쿨러’를 포함해 소비자의 소장 욕구를 자극했다. 또 제품 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 ‘스무스토피아(Smoothopia)’도 기획했다. 19일부터 사흘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 178’에서 열리는 이 팝업은 ‘부드러운

(Smooth)’과 ‘이상향(Utopia)’을 합친 이름처럼 풍성한 거품과 부드러운 목넘김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캔 뚜껑이 통째로 열리는 풀오픈캡 구조의 입구, 10분마다 솟구치는 거품 조형물, 거품 소리를 표현한 음향 효과와 안개 연출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방문객이 제품의 특성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SNS 이벤트와 이색 포토존까지 마련해 MZ세대의 체험·공유 욕구를 겨냥했다.

롯데칠성음료는 보다 앞선 지난 5월 ‘크리시풀오픈캔’을 출시해 강한 탄산과 시원한 맛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했다.

업계는 풀오픈캔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새로운 음용 문화를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신선한 경험’에 기반한 풀오픈캔의 특성상 장기적인 수요 유지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출시 초기 폭발적인 반응 이후 재구매율 관리가 중요하다”며 “차별화된 패키지가 일시적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맛, 가격, 유통 전략과의 결합이 필수”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스타벅스, 가을 신메뉴 출시

스타벅스가 18일 서울 스타벅스 한국프레스센터 점에서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를 비롯한 가을 음료 출시를 알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한국P&G-리스테린

구강케어 완벽조합 기획전

한국P&G의 구강관리 브랜드 오랄비가 오는 29일까지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는 구강청결제 브랜드 리스테린과 ‘구강케어 완벽조합’ 기획전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두 브랜드의 대표 제품을 구성해 양치와 가글로 치주 질환의 원인이 되는 플라그 제거부터 입 속 유해균 억제까지 구강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오랄비 칫솔과 리스테린 구강청결제를 대상으로 교차 가능한 원플러스원(1+1) 혜택을 제공한다. 오랄비 행사 제품은 ▲오랄비 탁월한 세정 초소형 헤드 CX3 입 ▲오랄비 고탄력 초미세모 틸트케어 4입 등 2종이다. 리스테린은 ▲리스테린 토탈케어 플러스 ▲리스테린 토탈케어 마일드 2종이다.

/이청하 기자

신제품

CJ올리브영 ‘바이오힐 보’

엔에이디 프리즈셀 2종

CJ올리브영은 자체 브랜드 바이오힐 보에서 광채·항노화 제품군 ‘엔에이디 프리즈셀’을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제품으로는 ‘엔에이디 프리즈셀 글로우 파워 세럼(사진)’과 ‘엔에이디 프리즈셀 글로우 필름 마스크’를 선보인다.

엔에이디 프리즈셀 글로우 파워 세럼은 유호 성분을 담은 2000개의 캡슐로 설계됐다. 캡슐이 피부에 부드럽게 흡수되면서 이마부터 턱까지 다각도로 윤기를 부여하고 피부 밀도와 탄력을 개선해 준다.

엔에이디 프리즈셀 글로우 필름 마스크는 특히 공정을 거친 0.03mm 바이오랩핑 필름 제품이다. 피부 굴곡에 따라 광채막을 형성하는 효과를 선사한다.

/이청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오가노이드’ 등 차별화 경쟁력 뽐내

2025 BPI

CRO·CMO 등 사업 역량 소개
신약개발 일정 가속화 전략 발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15일(현지 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막을 올린 ‘2025 바이오프로세스 인터내셔널(BPI)’에 참가했다고 18일 밝혔다.

BPI는 세계적 권위의 바이오 행사로 바이오 의약품 개발, 생산, 분석 등 바이오 산업 전 분야에 대한 최신 지견을 나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8년부터 8년 연속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도 단독 부스를 운영하며 임상시험수탁(CRO)부터 위탁생산(CMO)까지 아우르는 사업 역량을 홍보했다. 특히 삼성 오가노



지난 16일(현지 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2025 바이오프로세스 인터내셔널(BPI)’에서 이태희 삼성바이오로직스 항체배양PD팀 상무가 스피킹 세션에 연사로 참여해 발표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드, 항체·약물접합체(ADC), 메신저 리보핵산(mRNA) 등으로 확장된 포트폴리오를 적극 알렸다.

16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이 발표 무대에서 기업 경쟁력을 강조했다.

이태희 항체배양PD팀 상무는 ‘신약개발 가속화: 개발 가능성 평가부터 임상시험계획(IND) 제출까지’를 주제로 고객사 신약개발 일정을 단축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초기 단계 개발 가능성 평가, 리스크 기반 화학·제조·품질관리(CMC) 계획 수립, 병렬 워크플로우 도입 등 고품질을 유지하며 개발 복잡성은 줄인 차별화된 방안을 설명했다.

허계연 화학·제조·품질관리(CMC) 지원팀장은 ‘분석법 공동 적격성 평가: 개발부서와 품질관리간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 생산을 위한 기술이전의 효율성 강화 및 개발 일정 가속화 전략’에 대해 포스터

발표했다.

분석법 공동 적격성 평가는 임상물질의 품질 분석법을 개발하는 부서와 이를 검증하는 부서가 함께 적격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기존 각 부서별로 분리되었던 분석법 개발과 평가 절차를 통합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개발 단계에서 평가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필수적이었던 기술이전 단계를 생략하고 고객사가 의약품 개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술이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가능성도 낮출 수 있어 분석법의 완성도 역시 한층 높아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속적으로 기술력을 강화해 발전하는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오스템임플란트 ‘Best HRD’ 재인증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6일 서울 페어몬트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에서 인증서 및 인증패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인적자원 개발과 관리의 모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및 기업에게 부여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오스템임플란트는 2016년, 2019년, 2022년에 이어 올해까지 4회 연속 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Best HRD’ 인증 로고 활용, 정기 근로감독 면제, 고용지원금 선정 가점 등 각종 혜택도 유지한다.

/이청하 기자

종근당, 위고비 국내 판매… “비만치료제 시장 확대”

노보노디스크제약 공동판매 계약

종근당은 서울 충정로 본사에서 한국 노보노디스크제약과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국내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내달 1일부터 국내 병원을 대상으로 위고비의 영업 및 마케팅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위고비는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세마글루티드 성분의 주사제로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여 체중 감량과 심혈관계 위험 감소를 돕는 비만치료제다. 단일 GLP-1 수용체 작용제(GLP-1



RA)이자 GLP-1 제제 중 유일한 생물학적 제제로, 인체에서 생성되는 GLP-1 호르몬과 94%의 상동성을 가진다. 글로벌 허가 임상 중 STEP 1과 STEP 5에서 평균 17%의 체중감량을 보였으며, 피험자 3명 중 1명에서 약 20% 이상의 체중감량 효과가 확인됐다.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STEP 6, 7, 11 임상에서도 일관된 체중감량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다.

특히 위고비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심혈관계 사건(MACE) 위험 감소 적

증을 보유한 비만치료제다. 지속적인 체중 감량 효과는 물론 체중 감량과 독립적으로 주요 심혈관계 발생 위험을 초기에 감소시키는 결과를 입증했다.

종근당 김영주대표(사진)는 “비만치료 분야에서 획기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위고비의 파트너사가 되어 기대가 크다”며, “비만 동반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및 당뇨 시장을 선도하며 축적한 종근당의 노하우와 다국적사 및 국내사와의 성공적인 공동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



2025 물류 & 모빌리티 포럼

모빌리티가 바꾸는 **물류의 미래**

| 일시 | 9월 24일(수) 오후2시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행사명 2025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주제 모빌리티가 바꾸는 물류의 미래
일시 2025년 9월 24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최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HYUNDAI, KSI
등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의 물류&모빌리티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0	〈축사〉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학도 한국협업진흥협회장 조풍연 한국 SW-ICT총연합회 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14:50	허원호 기아 국내 PBV 전략팀장 : 물류 산업에 PV5가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강연	14:50~15:20	김기혁 에스더블유엠 대표 : 로봇택시 어떻게 준비해야하나
	15:20~15:50	김영준 파블로항공 대표 : AI 드론의 무한한 확장, 미래 물류 혁신의 출발점
	15:50~16:20	강종수 한국자동차연구원 센터장 : 물류 모빌리티 전기다목적자동차 산업육성
	16:20~16:50	강인호 피코이노베이션 이사 : 중소제약사들이 뭉쳐 만든 피코이노베이션의 물류혁신 스토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 차세대 클래식 음악인재에 무대 제공

인재 성장지원 '온드림 시리즈' 성료
60명 장학생, 앙상블 활동 참여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차세대 클래식 음악 인재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온드림 시리즈'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재단은 지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예술의전당 인준아트홀과 IBK챔버홀에서 '온드림 아티스트 시리즈'와 '온드림 실내악 시리즈'를 열어 장학생과 출신 아티스트들에게 무대를 제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온드림 아티스트 시리즈는 2022년부터 이어온 독주 리사이틀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현악



지난 9월 10일과 1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개최된 '온드림 실내악 시리즈' 공연 모습. /현대차 정몽구 재단

부분 한국인 최초 종신단원으로 활동한 비올리스트 유혜림, 국내 주요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낸 베이스바리톤 김재

울, 최근 평창 대관령 음악제에서 활약한 호른리스트 최선율이 무대에 올라 깊은 울림을 전했다.

현재 약 60명의 장학생이 온드림 앙상블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임윤찬(피아노), 한재민(첼로), 신경식(비올라), 선율(피아노) 등 세계적 콩쿠르 수상자들도 재단 지원을 받으며 국제무대에서 활약 중이다.

재단 관계자는 "단계별 육성을 통해 인재들이 차세대 음악가로서 기량을 맘껏 발휘하고,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재정적 지원은 물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장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다양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GI서울보증, 소아암 환아에 후원

SGI서울보증은 지난 17일 한국백혈병어린이 재단에 소아암 투병 중인 환아들을 위해 기부금 5000만원과 헌혈증서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왼쪽부터)이상규 SGI서울보증 경영기획본부장이 서선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무총장에게 후원증서를 전달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SGI서울보증



쿠팡-안동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쿠팡이 경북 안동시와 손잡고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위한 상생 협력에 나선다. 쿠팡은 지난 17일 서울 본사에서 (왼쪽부터)권기창 안동시장,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김형동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쿠팡



현대건설, 뉴질랜드 주택 개발사업 나서

현대건설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본사 사옥에서 뉴질랜드 투자 운영사 HND TS, 뉴질랜드 현지 건설사 CMP 컨스트럭션과 각각 '더 스트랜드' 주택 개발사업에 대한 시공사 조기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왼쪽부터)김태희 현대건설 건축사업부장과 장 아선 HND 홀딩스 창업주, 로널드 맥레이 CMP 대표가 체결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건설

SK온, 산학협력으로 R&D 인재와 소통

박기수 미래기술원장, 한양대 특강
현장 목소리 반영, 인재 선제 확보

SK온이 차세대 배터리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인재와 직접 소통하며 산학협력을 통한 미래 동반 성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책임자가 대학을 직접 찾아 산업계와 학계 간 협업을 강화하는 '열린 R&D 생태계' 구축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SK온은 지난 17일 박기수 미래기술원장(사진)이 한양대학교에서 R&D 특강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SK온의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미래기술원장이 대학 현장에서 강연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박 원장은 한양대에서 배터리 관련 학과 교수진과 대학원생 등 120여 명을 대상으로 '정해진 미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Envisioned Future, Together We Move Forward)'를 주제로 강연



에 나섰다. 그는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전망과 기술 동향 ▲미국·유럽·아시아 등 주요 시장에서의 SK온 성장 전략과 기술 리더십 ▲글로벌 어워드 수상 등 주요 성과를 공유하며 미래 기술 방향을 제시했다.

박 원장은 "기술 기업의 미래는 결국 사람, 특히 연구개발 인재에서 결정된다"며 "산업계와 대학이 함께하는 산학 협력은 R&D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미래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동반성장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SK온은 연구개발 책임자가 대학 현장을 직접 찾아 실질적인 현장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R&D 전략에 적극 반영하고 미래 혁신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원관희 기자 wkh@

한화, '서울세계불꽃축제' 안전대책 강화

안전인력 3700여명 배치
안전관리 예산 31.3억 투입

한화그룹은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5'에 역대 최대 규모의 안전 인력을 투입하고 환경 관리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한화는 축제 당일 100만 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현장 안전 대책을 대폭 강화했다. 한화 임직원 봉사단 1200여 명을 포함해 총 3700여 명이 배치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8.7% 늘어난 규모다. 안전 관련 인건비와 장비 마련 등 순수 안전관리 예산만 약 31억3000만원이 투입된다.

통신사 데이터를 활용해 인파 밀집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스마트 안전관

리 시스템 '오렌지세이프티'도 운영된다. 서울시 4개 자치구와 소방·경찰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종합상황실도 구축돼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안전 대책은 불꽃 연출 방식에도 반영됐다. 불꽃은 원효대교를 중심으로 마포대교(서쪽)와 한강철교(동쪽) 양방향에서 '쌍둥이(데칼코마니)' 형태로 연출돼 여의도와 이촌동, 노량진은 물론 마포구 일대와 선유도공원까지 관람 범위가 넓어진다. 이를 통해 관람객을 분산시키고 혼잡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한화 봉사단 1200여 명이 참여하는 '클린 캠페인'이 진행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행사장을 정리한다. 이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10분 천천히' 캠페인도 진행된다. /원관희 기자

제네시스, 부국제 최대규모 브랜드 공간 마련

'제네시스 퍼블릭 부스' 운영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부산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진행되는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후원사 중 최대 규모의 브랜드 공간인 '제네시스 퍼블릭 부스'를 운영한다.

18일부터 25일까지 운영되는 '제네시스 퍼블릭 부스'는 ▲씨네 라이브러리 ▲더 사운드 트랙 ▲인터뷰 룸 ▲시네마틱 스튜디오로 구성됐으며, 관객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영화제와 제네시스 브랜드를 더욱 자연스럽게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씨네 라이브러리는 관객들이 독서와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이번 영화제 개막작 '어쩔수가없다'의 박찬

옥 감독 작품 관련 도서를 비롯해 주요 영화제 수상작 및 역대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 관련 도서 등 영화를 테마로 제네시스가 엄선한 도서가 비치됐다.

더 사운드 트랙은 LP 음반으로 여러 명작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감상하며 영화를 볼 때 느꼈던 감동을 떠올릴 수 있도록 조성됐다. 인터뷰 룸과 시네마틱 스튜디오는 제네시스 및 영화제와 함께한 추억을 인터뷰 영상과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공간이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영화와 예술에 대한 제네시스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과의 지속적인 교감을 통해 브랜드 철학을 더욱 풍부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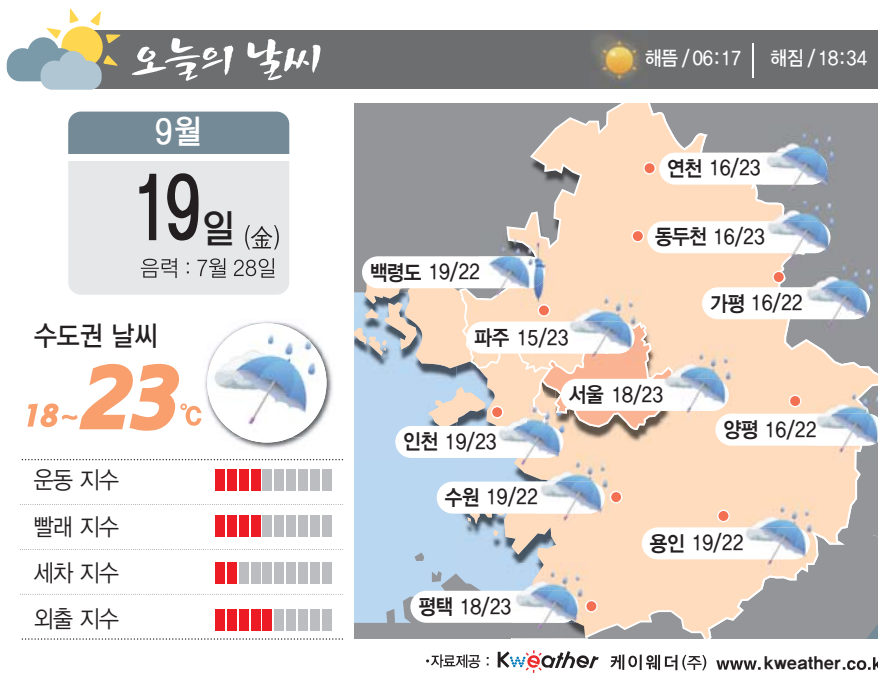
/양성운 기자

LG, 추석 맞아 협력사에 납품대금 조기지급

LG는 LG전자,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D&O 등 8개 계열사가 추석 명절에 앞서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납품대금을 최대 14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조기 지급하는 납품대금은 총 9800억원 규모다.

LG 계열사들은 납품대금 조기 지급 외에도 협력사가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펀드, 직접 대출 등을 포함해 약 1조 2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인사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 △김경호 국민일보 사장

부음

▲유우형(향년 90세)씨 별세, 유승훈·유승

학·유승혜(서울 신미림초 교장)씨 부친상, 김재섭(비즈니스포스트 부국장·전 한겨레 신문 산업팀장)씨 장인상, 홍경숙·정미희씨 시부상, 유미정·유수환·유수빈·유가을씨 조부상, 김가영·김재웅씨 외조부상 = 18일 오전 9시, 원주 효담삼산병원 장례식장 401호실, 발인 20일 오전 7시, 장지 충북 제천시 청풍추모공원. 033-733-4444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민관합동 봉사

고려아연은 온산제련소 임직원 및 울산시 공무원과 함께 3분기에도 올준군 수연재활원을 찾아 '1사 1시설 온기나눔' 민관합동 봉사활동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연재활원은 중증장애아동의 보육과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고려아연



SPC그룹, 장애 어린이 가족에 여행 선물

SPC그룹이 장애 어린이 가족들을 제주도로 초청해 특별한 힐링 여행을 선물했다. SPC그룹은 푸르메재단을 통해 선정된 장애 어린이 가족 30여명을 초청해 16일부터 3박 4일간 행사를 진행했다.

/SPC그룹



헛터그룹에서는 누구나 성실하면, 억대 연봉을 이룰 수 있습니다.

헛터그룹의 성장을 주도하실 프리랜서 영업지부장님을 모십니다.

헛터그룹 소개

풍요롭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30년 전통의 "헛터그룹"은 아래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한홍삼(주) _ 건강백화점 사업부문**

1000여개의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홍삼&건강상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매장 사업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주)헛터 _ 수출 사업부문**

홍삼&건강상품을 아시아,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CIS의 36여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 **(주)헛터방송 _ 브레인TV 사업부문**

3,600만여 가구의 가시청가구를 확보하고, 350여개의 TV채널과 경쟁하여, 당당히 50위를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는 장기, 체스, 보드게임 전문 TV방송채널으로서, 강력한 마케팅도구로서 최고의 가성비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 **(주)헛터라이프 _ 이커머스 사업부문**

7만여종의 취급상품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자체적으로 종합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20여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50여개 파트너사에 복지쇼핑몰의 구축과 IT개발관리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삼장홍삼(주) _ 한삼인 유통 사업부문**

농협홍삼 한삼인의 발효홍삼제품의 국내와 해외 유통의 독점 판매원으로서, 2009년부터 한삼인 발효홍삼제품의 국내외 유통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요강

모집부문	주요업무	자격요건	인원
영업지부장 (위촉직/프리랜서)	"헛터그룹에서 할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소개만 시켜주십시오. 사업설명과 계약은 본사가 책임집니다." ◎ 건강상품의 창업후보자 발굴 ◎ 복지쇼핑몰 개설 후보자 발굴 ◎ TV 광고스폰서 발굴 ◎ 건강 상품 판매, 도소매업자 발굴 등	당신의 열정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 경력, 학력 무관	00명

급여조건

100% 성과급 (개척수당+매출액 비례 성과급)

전형절차

서류접수 → 면접 → 활동시작

연락처 : 010-9954-1067/02-2163-0049

금융당국 개편안 논란



박 승 덕 역
냉정과 열정사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논란이다. 금융위원회(공무원조직)와 금융감독원(공직 민간조직) 내부도 어수선하다. 금융당국 개편안은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옮기고, 금융감독 기능만 ‘금감위원회(현 금융위원회)’에 남는다. 금감위 아래에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둔다. 금감원 내에 있던 소비자보호처를 ‘금소원’으로 분리해 금감원, 금소원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효율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내세웠다. 하지만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금감위와 금감원 간 권한 조정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금감위가 정책을,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담당한다는 원칙은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그 경계가 모호하다. 정책 설계 기관인 금감위가 사실상 금융감독 가이드라인까지 주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줬다. 금감원의 독립성이 흔

들릴 수밖에 없다. 시장 안정과 공공성이란 원칙을 지키기 어렵다. 결국 금융회사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인 투자와 혁신이 요원해진다.

또 조직 슬림화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현장 대응력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디지털 금융, 가상자산, 핀테크 등 새 분야는 보다 세분화된 감독국이 필요하다. 그런데 관련 부서가 통폐합되거나 상위 부처의 통제 아래 묶이면서 혁신을 뒷받침하기보다 리스크 감지 능력마저 약화될 수 있다.

일부 핵심 기능이 금감위로 집중되자, 금감원 내부에서는 ‘정책 보조기관’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온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비자 보호다. 대형 금융사고와 불완전판매 사태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금감원내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소원을 만든다. 건전성 검사와 소비자보호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상황인데 소비자보호 조직이 떨어져 나가면 정보 공유 등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에선 금융민원이 돈과 엮힐 경우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 금소원의 역할이 제한적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금소원의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보다 법무법인으로 달려간다는 것이다.

금감위가 금감원의 제재 권한을 축소하고,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이관하려는 움직임도 논란이다. 금감원이 경징계만 담당하는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하는 꼴이다. 또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돼 경영·재정평가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금융회사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특수민간조직의 경영평가를 정부가 하는 꼴이다. 금융회사는 재정경제부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등 ‘4명의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고 입이 나왔다.

조직개편은 명확한 철학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감독 독립성 확보, 소비자보호 강화, 신흥 금융환경 대응이란 큰 방향이 우선 제시돼야 한다. 그 위에 조직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개편은 권한 다툼과 정치적 계산 속에서 탄생한 ‘불완전한 타협안’으로 비춰진다.

정부가 이제라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과연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변호인이었던 이찬진 원장이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답해야 한다. ‘앙고 빠진 찌뽕’ 상태가 될 금감원의 수장으로서,

/bluesky3@metroseoul.co.kr

AI 결제 전쟁, 속도보다 신뢰가 먼저다



기지 수첩
최 빛 나
(IT부)

구글 클라우드가 최근 공개한 ‘에이전트 페이먼트 프로토콜(AP2)’은 결제 시장을 뒤흔들 만한 선언이다. 사용자가 AI 에이전트에게 결제 권한을 위임하면 조건이 충족될 때 자동으로 결제가 실행되는 구조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는 물론,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까지 아우르는 범용 표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마스터카드, 페이팔,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코인베이스, 유니온페이 등 60여 글로벌 기업이 협력에 참여한 사실은 이 시도가 단순한 기술 실험을 넘어 국제적 표준 경쟁의 서막임을 보여준다.

국내 기업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

페이는 최근 AI 에이전트와 연계 가능한 결제 MCP와 토크를 선보였다. “송금해줘”라는 음성 명령으로 결제 링크를 생성하거나 취소, 상태 조회까지 가능한 초기 기능이다. 네이버페이 역시 생활금융 플랫폼을 넘어 AI 기반 결제 접점을 확대하려는 구상을 내비쳤다. 지금까지 간편결제는 단순 편의의 서비스였지만, 이제는 AI가 소비자의 패턴을 학습해 ‘대신 구매’까지 수행하는 단계로 진화할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팩트는 분명히 짚어야 한다. AP2가 공개됐다고 해서 AI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완전 자동 결제’를 실행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거래는 사용자의 서명이 담긴 위임장에 근거해야 하고, 조건이 충족될 때만 진행된다. 구글 역시 보안성과 책임성을 강조하지만, 아직 글로벌 결제 당국의 공식 승인을 받지 않았고 상용화 일정도 확정되

지 않았다. 카카오페이의 연동 서비스 역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자동화 수준은 제한적이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흐름은 분명하다. 결제는 더 이상 금융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AI 에이전트가 결제까지 관여하는 순간, 결제는 단순한 거래 수단이 아니라 고객 데이터를 축적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플랫폼 경쟁의 최종 관문이 된다.

결국 승부처는 속도가 아니다. 소비자 신뢰다. 결제 권한 위임, 개인정보 보호, 이상 거래 발생 시 책임 소재 같은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과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규제 영역이다.

AI 결제 전쟁은 이미 시작했다. 그러나 누가 먼저 자동화를 구현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신뢰를 확보하느냐가 진짜 승부를 가를 것이다.

/vitna@

오늘의 운세 9월 19일 (음 7월 28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추억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 48년생 수영을 하러 물가에 왔으니 해엄을 치거나 가라앉거나 둘 중 하나. 60년생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듯 독서를. 72년생 실수를 덮으려고 말을 억지로 우겨대지 말 것. 84년생 미련은 빨리 버려라.



37년생 오후에 간담상조肝膽相照의 친구 문병 가야. 49년생 밀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 61년생 실패를 좋은 경험으로 삼아라. 73년생 보라색 옷이 행운을 불러오니 기분전환이. 85년생 돌팔매질을 하면 큰일 난다.



38년생 세상이 변화되어 탄 세상이니 격세지감隔世之感이다. 50년생 눈에서 멀어져도 마음은 변치 않는다. 62년생 오후 7시 계단조심. 74년생 불타는 금요일이지만. 86년생 집안에서 곁들기만 하는 신세이니 이른 오전에는 외출하자.



39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변화가 없다. 51년생 계획해온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린다. 63년생 지나가는 바람에서 좋은 향기가 난다. 75년생 내가 다하면 부모님께서 불편해 할 것이니 참아보아라. 87년생 기대가 너무 커서 실망도 커진다.



40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하루. 52년생 몇 사람이 할 일을 혼자서 해나간다. 64년생 이직이 쉽지 않으니 깊이 생각하고 결정. 76년생 상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기보다는. 88년생 세월이 흐르니 부모님 은혜를 알 것 같다.



41년생 착한 친구를 만나니 행복한 하루. 53년생 옳다 해도 생색내지 말아라. 65년생 혼자만 바쁘고 남들은 손 놓고 있다. 77년생 좋은 기회가 오는데 음주로 놓칠 수 있음을 인식. 89년생 군계일학群鷲一鶴이란 말이 나와는 맞지 않으니.



42년생 호랑이 무서운 줄 알고 덤벼라. 54년생 부모로서 명모삼천명母三遷되간다. 66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다시 마음이 혼란하다. 78년생 꽃이 아름다운 건 잘해야 열을. 90년생 주변에 잔재주를 가진 사람도 인재로 필요할 때가.



43년생 경기침체가 온다니 걱정. 55년생 마트를 가보니 오른 물가를 실감. 67년생 말만 앞세우지 말자. 79년생 유리하면 좋아하고 불리하면 싫어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감탄. 고토甘香齋라 한다. 91년생 나이 들어 투자는 거지가 될 수 있음.



44년생 아랫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 56년생 목표한대로 이익이 나니 감사. 68년생 큰 그림을 그려보면 직장의 상황판단이 된다. 80년생 청년은 미래를 논한다고 하니 긍정적으로. 92년생 이제라도 나를 개발해보자.



45년생 목이 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법이다. 57년생 행복은 자신이 만들어가기 나름이다. 69년생 미팅에서 감정절제를 해야 일이 성사. 81년생 진실이 늘 최상의 답은 아니니 포용이 중요. 93년생 돼지를 사기전에 돼지우리를 먼저 만들다.



46년생 밀렸던 자금이 수급된다. 58년생 인생에서 늦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70년생 상처는 나아도 흉터는 남는다. 82년생 태평한 시절의 평화로운 모습을 강구연월康衢煙月이라하는데 지금이 그렇다. 94년생 오후에 음주 운전 하지 말아라.



47년생 큰 재물은 노력과 수고가 따른다. 59년생 무리한 산행으로 다리 부러질 수. 71년생 이직해봤자 대동소이大同小異다. 83년생 백화점에 가니 사고 싶은 물건이 너무 많아서 어질하다. 95년생 보리 아삭이 자라듯이 집안이 물 흐르듯 평화롭다.



김상회의四季 밀크티 예산

필자가 십년도 넘은 초겨울 언젠가 오후 4시 좀 넘어야 하는 분이 운영하는 복촌 근처 찻집에 가게 되었다. 주인장은 밀크티를 대접하겠다는 화로 위 긴 손잡이가 달린 편수 냄비에 찻잎과 생강, 정향 그리고 아마도 월계수 잎으로 기억되는 잎들을 함께 끓이다가 우유를 더 넣고는 좀 더 끓여 영국의 앤틱 풍취가 그윽한 로얄알버트 잔에 내었다. 허기가 살짝 돌던 참에 은은하게 풍기는 생강과 어우러진 정향의 향취도 그러했지만 달콤 씹살하면서도 부드럽게 혀끝에 와 닿는 밀크티는 신들의 음식이자 음료인 엠브로시아나 넥타가 부럽지 않을 정도였다.

주인장이 함께 내온 두툼하고 촉촉한 비스킷과 밀크티를 접한 이후 희한하게도 한국은 전통적인 녹차도 그러하지만 서양에서 더 인기가 많은 아삼티와 다즐링 등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의 차들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커피가 대세라지만 아직 필자의 취향은 홍차를 우려낸 후 우유와 생강즙을 살짝 가미한 밀크티다. 이걸 간단하게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밀크티이고, 제대로 만들자 치면 아삼티의 재료가 되는 찻잎이나 실크티 찻잎에 월계수나뭇잎 약간, 계피 약간 넣어서 끓이다가 마지막 즈음에 우유를 넣고 끓이면 훌륭한 밀크티가 된다. 대부분 시럽이나 설탕을 첨가하여 즐기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밀크티에 비스킷이나 스콘을 곁들이면 매우 훌륭한 요기가 되기도 한다. 르네상스 계몽시대를 이끈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유럽의 귀족들이나 철학과 문학, 예술을 이끈 살롱 문화에 있어 차는 그야말로 시대적 지성을 있게 한 매개체일 수도 있다. 유럽에서는 문화혁명이 일어난 것이고 중국의 원나라, 청나라는 차 문화에 빠진 이국의 정복자들을 나약하게 만든 주범이라는 소리까지 있는 것이나 밀크티만큼은 영양보충제요, 감기약이기도 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5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6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컬러스도쿠110

초하스도쿠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레코드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7	2	9	8	1	9	2	6
8	9	1	2	6	9	7	2	8
1	6	9	2	7	1	8	9	8
9	1	2	8	7	6	7	6	8
9	2	8	6	1	8	2	7	9
2	8	7	9	1	6	8	1	2
7	2	6	8	9	2	5	1	9
6	8	7	2	5	1	9	2	1
2	9	5	1	8	9	2	6	7

8	6	9	2	7	8	2	1	9
2	9	2	1	6	8	9	7	8
9	7	1	8	2	9	2	6	8
8	9	7	9	1	2	6	8	2
6	8	8	7	2	1	9	1	2
2	2	9	8	9	6	8	7	1
1	2	6	2	8	7	9	8	9
9	8	2	9	8	1	7	2	6
7	1	8	6	9	2	9	2	8

이탈리아 최고의 화이트와인 ‘알토 아디제’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伊 ‘알토아디제 와인 서밋 2025’

늦여름 일주일 가까이 이어진 비가 몇 자 와이너리들이 올해 첫 포도 수확에 나섰다. 포도나무 사이로 가파른 비탈길에는 농부와 가족 정도로 보이는 소수의 인원이 손수확을 하고 있고, 와이너리로 이어진 도로는 수확한 포도를 실은 트랙터가 부지런히 오가고 있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다양하고 독특한 와인 산지로 꼽히는 알토 아디제의 풍경이다.

이탈리아 최북단인 알토 아디제. 알프스 산맥이 병풍처럼 지역을 둘러싸고 좌우로 뻗어있고, 산 정상쪽으로는 쌓인 눈도 보이지만 포도밭이 펼쳐진 알토 아디제에는 9월임에도 햇살이 한여름만큼 따가웠다. 포도가 잘 익기 이보다 좋을 순 없겠다고 생각한 순간, 오후 2시 마치 알람을 맞춰놓은 것처럼 시원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오기 시작했다. 말로만 듣던 가르다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그야말로 최고의 화이트 와인을 만들기 천혜의 환경이다.

지난 4일부터 사흘간 이탈리아 북부 알토 아디제 자치주의 주도인 볼차노에서 ‘알토 아디제 와인 서밋 2025’가 열렸다. 이번 와인 서밋에는 전 세계 11개국에서 80여명 안팎의 와인 전문가들이 모였다. 와인업계에서는 최고의 자격으로 여기는 마스터 오브 와인(MW)도 5명나 참석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초청됐다.

◆ ‘작지만 강하다’…다양성의 힘

안드레아스 코플러(Andreas Kofler) 알토 아디제 와인 협회장은 ‘와인 서밋 2025’의 개막을 알리며 “2500년의 역사를 지닌 알토 아디제 와인은 지난 1970년 알토 아디제 DOC(이탈리아 와인 등급 가운데 상위)로 원산지 표시를 인정받았는데 이어 현재는 전체 와인의 96%가 DOC일 정도로 이탈리아 최고의 와인 산지가 됐다”며 “최근에는 원산지 표시를 좀 더 세분화해 추가 지리적 단위인 86개의 UGA를 와인 레이블에 표시하는 등 와인 품질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알토 아디제 와인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다양성이다.

와인을 말하기에 앞서 경험해본 이 땅 자체가 그렇다.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국경이 접해 사람도, 언어도, 역사도 다양하다. 볼차노 시내든, 산악 지역까지 올라가든 이탈리아어와 독일어가 같이 표기되어 있다. 지명도 두 가지로 불린다. 알토 아디제 이면서 티롤의 남쪽을 뜻하는 독일어 쾨트티롤(Südtirol)이다. 레스토랑에서도 웨이터가 이탈리아어로 물어오지만 손님들은 아무렇지 않게 독일어로 주문하고 서로가 알아듣는다.



알토 아디제의 최대 와인 산지인 에판(Eppan)의 포도밭 한가운데 위치한 프로이텐슈타인성에서 ‘와인 서밋 2025’의 막이 올랐다.



안드레아스 코플러 알토 아디제 와인 협회장이 ‘와인 서밋 2025’ 개막을 알리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알토 아디제 와인 서밋 2025 마지막 날 열린 그랜드 테이스팅.

/알토 아디제 와인 협회

이탈리아 최북단 산 정상에 포도밭 세계 11개국서 전문가 80여명 모여 2500년 역사…전체의 96% DOC

재배하는 포도 품종 20여개 달하고 포도나무의 평균수령은 50년 이상 와인 집중위해 포도송이 절반 잘라

‘그랜드 테이스팅’이 피날레 장식 화이트·로제 등 총 365종 선보여



이탈리아 알토 아디제 화이트 와인. /안상미 기자

알토 아디제에서 재배하는 포도 품종은 무려 20여 개에 달한다. 주력 품종으로 추려봐도 화이트 품종이 피노 그리지오와 샤도네이, 게부르츠트라미너, 피노 블랑, 소비뇽 블랑 등 5개, 레드 품종이 스키아바와 피노누아, 라그레인 품종 등 3가지다.

그래도 다양성의 원천은 역시 테루아다. 수년만 전을 거슬러 올라가 아프리카 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로 알프스 산맥이 생겨나면서 붉은 화산암을 비롯해 와인에 짙은 미네랄을 주는 석영과 운모, 석회암까지 곳곳마다 다양한 토양이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해발 200미터부터 1000미터까지 다양한 고도가 경우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렸다.

◆ ‘칸티나’…협동조합 와이너리의 힘

알토 아디제 와이너리는 운영 형태도 다양하다. 12개의 협동조합 와이너리가 전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32개의 사유지 와이너리가 25%를 담당한다. 나머지는 독립 와인생산자다.

알토 아디제 와인 이름에서 ‘칸티나’가 보인다면 협동조합 와이너리를 뜻한다고 보면 된다.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와이너리가 많다고 해도 대량으로 마구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가족 단위의 재배자들은 좋은 품질의 포도를 위해, 와이너리는 좋은 와인을 양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칸티나 테를라노(Cantina Terlano) 관계자는 “포도나무의 평균 수령이 50년 이상으로 원래도 소출량이 많지 않지만 집중력 있는 와인을 위해 그나마도 포도송이의 절반을 잘라 버린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최고의 와인을 가리는 ‘감베로 로쏘’에서 올해 최고의 화이트 와인으로 선정된 ‘그란 라포아 소비뇽 리제르바’

를 만든 칸티나 콜테렌치오(Cantina Coltreno) 역시 협동조합 와이너리다. 300여개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 경계도, 한계도 없다…그랜드 테이스팅

알토 아디제 와인 서밋의 마지막 피날레는 그랜드 테이스팅이 장식했다. 무려 365종에 달하는 와인이 선보였다. 알토 아디제 와인은 경계도, 한계도 없음을 강조하듯 화이트 와인은 물론 레드 와인, 스파클링 와인, 로제 와인, 스위트 와인까지 총망라했다.

화이트 와인으로는 게부르츠트라미너와 피노 비앙코, 소비뇽 블랑 등 대표 품종을 비롯해 그리너 벨트리너, 케르너, 소비니에 그리 등도 리스트에 올랐다.

레드 와인은 토착품종인 스키아바를 비롯해 라그레인, 피노누아, 메를로 등 많은 와인이 출품됐다. 알토 아디제가 워낙 화이트 와인으로 이름이 났지만 레드 와인 생산비중도 35%로 낮지 않다.

특히 아직 병입되기 전 상태인 배럴 샘플부터 각 품종마다 올드 빈티지까지 준비돼 알토 아디제 와인 생산자들의 자신감이 묻어났다.

일반적인 그랜드 테이스팅이 와인 부스가 마련되고, 참석자가 시음잔을 들고 다니며 관심있는 와인을 맛보는 것과 달리 알토 아디제 와인 협회는 원하는 와인의 번호를 6개씩 적어내면 소믈리에가 서비스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참석자가 원한다면 한 품종에서 6종의 다른 생산자의 와인이나 6개의 다른 빈티지 와인을 비교해 볼 수 있고, 또는 한 생산자가 만든 6가지 다른 품종의 와인 비교 시음할 수 있다.

/볼차노(이탈리아)=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트럼프 관세 전 ‘사재기’ 끝…LA·롱비치 항만 물동량 급감 /사진 뉴시스

▲한전, 美 원전시장 진출 의지 표명…현지 기업과 협력 논의

▲인니·네팔 이어 ‘피플파워’ 원조 필리핀 ‘반레포베이비’ 시위 확산 조짐

▲파키스탄 대홍수로 1000명 넘게 사망…이재민 30만명

▲한·중 외교회담 당일 북·중 당국자도 北서 회동

▲美조지아 사태에 놀란 루이지애나 “현대제철소 건설엔 영향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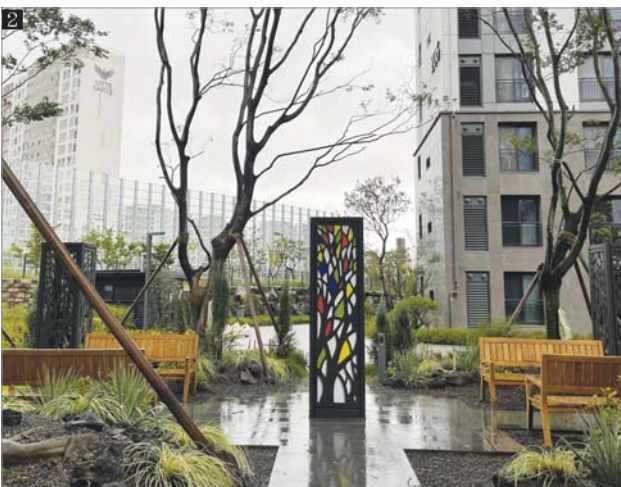


2차 쿠폰에
편의점 '신바람'
할인전 돌입
L1

metro®

Life

주류업계
'폴오피캔'
신제품 선택
L2



숲과 연못이 선물한 동심과 여유 정원에서 마주한 '하루의 심포'

아파트의 미학(美學)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파인베르

최근 찾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파인베르'. 지난 3월 입주주를 시작했다. 수인분당선 망포역 4번 출구에서 8번 버스를 타고 20분 가량 걸렸다.

지하철 1호선, 수인선, KTX경부선 환승역인 수원역까지도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덕영대로, 1번 국도 등을 통해 수원시 전역으로의 접근이 수월하고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 이용도 편리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쉽다.

단지가 위치한 망포지구는 수원의 대표 업무지단지인 삼성디지털시티 수원사업장이 맞닿아 있는 직주근접 입지다. 삼성디지털시티는 삼성전자 본사를 비롯해 삼성전자연구단지, 삼성제조기술센터 등 삼성전자 계열사와 협력업체 등이 들어서 있다.

이마트레이더스(수원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롯데마트(권선점), 이마트(수원점), 홈플러스(수원영통점), NC백화점(수원터미널점), CGV(동수원점), 메가박스(수원점) 등이 가깝다. 망포초, 잠원초교는 물론, 잠원중, 망포중, 망포고 등 영통 명문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망포동 학원가가 인접해 있다.

단지 인근에 도보로 이용 가능한 글빛누리공원, 지성공원, 방죽공원 등 녹지가 풍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서측에 수원의 4대 하천 중 하나인 원천리천이 있어 신동수변공원까지 이어지는

입주민 편의성 높은 조경공간 설계 만남과 여유 즐길 수 있는 '맞이정원' 자연서 아이들 뛰노는 '숲속놀이터'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다. 박지성축구센터 등 체육·문화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대우건설이 시공한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파인베르는 트레센츠 지하 3층~지상 최고 24층 13개 동, 총 796가구 규모, 파인베르 지하 3층~지상 최고 22층 11개 동, 총 770가구 규모에 두 단지 모두 전용면적 84㎡, 105㎡로 이뤄져 있다.

단지 전체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조망과 채광을 극대화했다. 세대당 1.5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과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세대로 진입할 수 있는 설계로 입주민의 편의성을 높였다.

전 세대에 현관창고, 안방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조성됐다. 전용면적 84㎡A, 105㎡A·B타입의 경우 실내 테라스, 휴 오피스, 휴집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화 공간 '그린라이프 테라스(유상)'가, 전용면적 84㎡B, 105㎡A, 105㎡B타입에는 알파룸이 있다.

맞이정원은 만남의 장이 되는 공간으로 이웃간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곳이다. 원터가든에서는 겨울철에도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시계탑이 입주민들을 맞이하며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준다. 이곳에서는 소중한 만남과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숲속놀이터는 숲 속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공간이다. 통나무 의자에서 쉬고 짚라인과 트랜폴린에서 신나는 모험을 즐길 수 있다. 커다란 철판에서 마음껏 그

림을 그리고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다.

육생비오톱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적인 공간이다. 나비와 새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들꽃과 나무를 심고 새집과 돌무더기를 만들었다. 새와 다람쥐, 나비 등의 서식지로 단풍나무, 이팝나무, 은행나무 등이 심어져 있다.

단지 한가운데에는 웅장한 석가산이 자리하고 있어 고요한 자연의미를 담고 있다. 이름은 '비원'으로 '되다'라는 뜻의 비(be)와 둥글다는 뜻의 한자 '원(圓)'의 합성어다. 상부에 위치한 티하우스에서 비원의 전경을 한눈에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푸른 조형물 에베레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에서 영감을 받았다. 하늘을 향해 솟은 이 조형물은 끝없는 도전과 발전을 상징하며 입주민들이 더 높은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단지 한가운데 웅장한 석가산 조성 '비원' 전경 한눈에 보이는 티하우스 입주민 성공·장수 기원하는 조형물 가족 함께 산책하는 '패밀리가든'도

붉은 조형물 무드셀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중 하나인 '무드셀라'에서 영감을 받았다. 4850년의 생명을 이어온 나무로, 강인함과 고요한 아름다움이 전해진다. 석가산 아래 우뚝 선 이 조형물은 입주민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패밀리가든은 온 가족이 함께 아름다운



1 트레센츠 맞이정원, 2 패밀리가든, 3 고요한 자연의미를 담은 석가산 '비원'과 티하우스, 4 트레센츠 내 에베레스트, 5 파인베르 내 무드셀라.

/전지원 기자

정원을 거닐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다. 파고라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고 물놀이장에서는 시원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액션그라운드에서는 탁구, 농구, 크로스핏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건강과 활력을 되찾아 체력을 길러 활기찬 에너지가 넘쳐나는 공간이다.

동심 가득한 놀이요소와 공간 연출로 아이들의 활발한 신체 활동을 유도하는 다양한 테마의 놀이터도 설치돼 어린이에 대한 배려도 엿보였다. 트레센츠 단지에는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파인베르 단지에는 공룡 시대를 테마로 한 놀이터가 생동감 있게 꾸며져 있다. 다양한 테마의 공간은 아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전지원 기자 jjw13@metroseoul.co.kr